朝鮮日報
夕刊
十六日 (金)
本紙朝夕刊十二面

防共問題를受諾함은 軍事的支配를意味?

國民政府는이點에非常苦慮

日中交涉의前途暗澹

【南京十五日發同盟】川越 蔣介石會見으로 暫時危機를 脫하엿든 交涉은 其後 一週間을經過하여도 何等 進展을보이지안코 膠着狀態를 呈하고잇다 交涉의 最難關은 依然防共問題로 國民政府는 此點 非常히 苦慮하고잇는 模樣이오 萬若 日本의 要求를 受諾하면 이는即時 日本의 軍事的支配를意味하는것으로 馮玉祥一派의 反對는 그만두고라도 日中交涉을 圍繞하고 急激히 擡頭한 人民戰線의 奮起를 捲起하고 따라서 反政府運動을 煽動하야 國民政府自體의 墓穴을파는 憂慮가 잇스므로 全然 對策에 窮迫하야 爲先 國內鎭撫를 圖謀함과 同時에 日本의 要求緩和에 努力하고잇는 狀態로 目下 第二次豫備交涉의 開始까지 疑心되여 川越 張群兩氏의 正式交涉도 何時에나 될는지 그豫想이 서지안는다 그리고 今次 交涉의 成否는 日中交涉의 岐路를 決하는것인만큼 國民政府도 相當히 熱意를가지고 犧牲을 拂하고잇다 그러나 一方 英國其他의 策動은 急速히 猛烈化하고 國民政府의 一部에도 此를 利用하야 情勢의 變化를 圖하고 交涉을 有利하게 轉換할라고 企圖하는者도잇서 國際情勢의 變化로 國民政府의 態度가 急變치나안흘는지 保障키어렵다 以上 諸點으로보아 交涉의 前途에 對하야는 只今아직 斷言할수업는것이 그眞相이라한다

北中國의中央化에 蔣氏積極的進出

韓復渠氏等暗中活躍

【上海十六日發同盟】十五日夜南京經由上海에向한 山東省主席韓復渠氏는 十六日午後六時 蘇州에서 列車를乘換하고 杭州에直行하엿다 十六日午後杭州 陸軍航空學校內에서 蔣介石氏와 重大會見을 行할豫定이다 冀察政務委員會秘書長 弋定遠氏도 蔣介石氏의 招電을밧고 同日杭州着의 豫定이라고하야 蔣氏는今後兩氏로부터 河北山東의 情勢를詳細聽取한後 積極的으로 北中國中央化工作에 나갈것이라고 信憑된다

【南京十六日發同盟】山東省主席韓復渠氏는 十五日午後十時二十分 津浦線列車로 浦口에到着, 即時 特別列車로 下關 中山碼頭로부터 上陸, 同地 中國官憲과 一時間半 密談을遂하고 十六日午前 零時四十分 下關發上海에 向하야 途中杭州에서 蔣介石氏를 會見하고 山東 北中國의 現狀을 報告協議할터이다

韓復渠氏突然南下

【濟南十五日發同盟】山東省政府主席韓復渠氏는 十五日午前突然杭州에向하엿다 右는 目下杭州에잇는 蔣介石氏와 會見하고 今回의 日中交涉이 北中問題에重點을 둔것으로보아 그對策에對하야 中央에意見을 申請하야指令을 請한것으로 推測되는데 國民政府의 對日態度는 只今아직 極히 模糊하야 交涉하는一面頻繁히 對日戰備를 整頓하고잇고 山東省政府에서도 飛行機의 設備其他軍事的設備를 命令하는等의 事實도잇서서 韓復渠氏의 南下는 軍事的으로도 極히 重大意義가 잇지나안흘가 자못注目되고잇다

國民大會 無期延期

【南京十五日發同盟】十五日中央常務會議는 馮玉祥氏司會下에 午前十時부터 開會되엿는데 國民大會延期件을 討議한 結果 新憲法을 審議할 重大會議인 國民大會는 無期延期키로 決定되엿다

最惡의境遇에對備 對日軍事會議開催?

【天津十六日發同盟】中央과不即不離의態度를 繼續하야 容易히 不動하고잇던 山東省主席韓復渠氏가 今回突然杭州에 赴함에對하야 消息通은
一、張群蔣伯誠、宋子文等의 山東中央化强制運動이 奏效함
一、日中交涉에 關聯하야 北中問題에 對하야 特히 韓復渠 蔣介石會談을 必要로함
等에잇다 觀測한다 一方陝西의張學良 山西의 徐永昌等도十六日南京에 赴하게되엿스며 一部에서는 蔣介石氏가 日中交涉의 萬一의境遇를念慮하야 對日軍事會議를 開催하기爲하야 各地의 軍政界巨頭를 招集한것이라한다

朝鮮神宮例祭

十七日嚴肅히擧行

朝鮮의 總鎭守 朝鮮神宮에서는 十七日 午前十時부터 例祭가 執行되는데 勅使의 御命을 바든 南總督은 丁原秘書官 內務局 林事務官等 隨員을 帶케하고 前日인 十六日 夕刻부터 勅使殿에 參籠하야 齋戒沐浴을 한後 當日은 衣冠의 正裝에 威儀를 整하야 神前에서 御幣帛을 大前에 奉奠하옵시는 御幣帛을 奉獻하기로 되엿다。 李王殿下 御代拜 李恒九男爵 李鍝公殿下 御代拜 市野澤御用掛의 御參列도잇고 總代玉串奉奠者는 朝鮮貴族總代 李琦鎔子爵、文官總代 大竹內務局長、武官總代 朝鮮軍佐枝參謀長、各道道民總代安井京畿道知事、京城府民總代甘蔗府尹으로 決定되고 參列員은 全朝鮮에亘하야 一千名에達한다 祭典終了後는 奉贊殿의眺望이 雄壯한斗華亭에서 漢江을眺望하면서 勅使의御饗應을 우러러 盛大한直會의宴이 開催되는데 當日神誠會로부터 立生華의奉納은 境內가더욱 裝飾되겟고 正午부터는 朝鮮總督의御奉納에依한 御神樂도잇서 그리케넓은神宮의境內도 人山人海를이룰것이다。 十七日의 朝鮮神宮例祭에各道知事로부터 推薦된地方篤行者로서 의名譽로운 參列員은左와如히決定되여 各各案內狀이發送되엿다

▲京畿道金鍾燮 姜信漢 ▲忠淸北道孫在廈 鄭寅興 ▲忠淸南道成元慶 沈相台 ▲全羅北道 姜完善 全承洙 ▲全羅南道金信鎬 金鍾翊 ▲慶尙北道徐丙朝 文明琦 ▲慶尙南道河駿錫 崔演國 ▲黃海道吳敎根 李鍾駿 ▲平安南道朴寶鶴 朱基玉 ▲平安北道(?) 把元 ▲江原道朴普鶴 金文善 金鍾國 ▲咸鏡南道金基玉(?) ▲咸鏡北道 崔洙鶴

英中輸出協定은 結局實現不能?

【東京電話同盟】英中輸出補償協定의締結、對中共同借款交涉의進捗等의 情報는 日中交涉이 難局에 逢着하고 잇는此際 相當히 日本外務當局의關心을 惹起하고잇는데 그後各地로부터 外務省에 到達한 情報를 綜合하면 共同借款交涉은 存在치안흔것은 全然明白하고 輸出補償協定도아직 成立에 이르지못하야그眞相은 左와如한것이 明白히되엿다 即英國海外貿易省輸出補償部는 今年五月 對蘇輸出振興을目的으로한 크레디트를 試驗的으로蘇聯에 對하야 設置하엿는데 그後의 運用의 結果는 相當히好調이여서 英國政府部內에서도 可能한限 이를 英國商品의 進出可能한 他地域에도 미치게할意見이 이러나 民間實業界에서도 最近 日米獨等의 進出에依하야 顯著한 頹勢에잇는 對中貿易을 回復하기爲하야 同樣의 크레디트를 中國에 設置하여달라는 希望이 强化하게 되엿다 그리하야 英政府는 中國에서 英國의 經濟的 乃至 政治的 勢力의 挽回를 目標로하야 對中輸出에 對한 補償크레디트를設定할 方針을 樹立하게 된것이다 그런데 中國의 經濟狀態는 複雜하고 또特殊한狀態를 呈하고잇스므로簡單히 크레디트를 設定치못하고 爲先輸出信用補償部로부터 專門家로서 保守黨議員 파트릭크氏를 中國에 派遣하야 實情의調査를 行케한것이라 推測되다 따라서 同氏는 長期에 亘하야 中國에 滯在하야 個個의 境遇에當하야 어느程度의信用을 與할가 그與否를 檢討하야 크레디트를 給與하는것이다 가튼 性質의것은 아닌模樣이라서 英中間에 協定을 締結하리라 한다

滿蒙會議今日開幕

【新京十五日發同盟】十四日夜滿洲里에잇는 滿洲國代表로부터外交部에의 入電에 依하면 滿蒙會商은 十四日最後的으로 準備會議를 終了하고 十五日午前十一時 滿蒙兩國代表委員이 列席하야 正式會議를 行하기로되엿다

白國의中立宣言 獨伊는大滿足

小協商國에는大打擊

【伯林十五日發同盟】獨逸政府當局은 白耳義皇帝 레오폴드三世의 中立宣言에 全幅的으로 滿足한 意를 表明, 十五日 午前 다음의 意向을 漏하엿다
一、白耳義는 過去五百年間 終始列國의 侵略을 바덧다 今次 兵役年限을 延長하고 國軍을 强化하엿는데 이로 完全히 自國의 獨立이 確保될수잇다
一、白耳義가 嚴正中立을 堅持하는以上 萬一侵略된다고도 各國政府가 白耳義를 支持할것임으로 各國도 容易히 侵略行動을 取하지안흘것이다

【羅馬十五日發同盟】伊太利政府當局은 白耳義皇帝 레오폴드三世陛下의 中立宣言에 對하야 極히 滿足의 意를 表明하고 十五日 다음의 意向을 表明하엿다
一、白耳義皇帝는 賢明한 政策을 採擇하엿다
一、레오폴드三世의 演說에 對하야도 로카르노會議에 對한 伊太利政府의 留保는 더욱 强化한것이 判明될것이다 로카르노會議開催까지에는 一層 愼重한 準備가 必要할것이다

【부다페스트十五日發同盟】白耳義皇帝의 中立宣言에 對하야 小協商各國은 重大衝擊을밧고 集團的安全制는 이제는 決定的打擊을 受할것이라 憤激한다 따라서 小協商國도 國際聯盟을 基調로한 外交活動에 根本的檢討를 加할必要에 切迫되야 歐羅巴政局은 新局面에 當面하게되엿다 한다

拓務大移動發令

【東京電話同盟】拓務省局長及臺灣總督府內局長 二知事의 榮任에 伴한 拓務本省、日本內地地方長官 朝鮮 臺灣 樺外地에 亘한 人事는 十六日 閣議로 左와 如히 正式決定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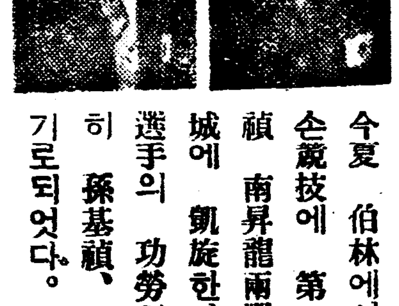
拓務書記官 兼臺灣總督府事務官 小河正儀
任靑森縣知事(二等) 小林光政
任高知縣知事(二等) 朝鮮總督府京畿道知事
任拓務省拓務局長(一等) 安井誠一郎
拓務書記官 兼拓務大臣秘書官 植場鐵三
任拓務省管理局長(二等) 朝鮮總督府咸鏡南道知事
任同府京畿道知事(二等) 湯村辰二郎
拓務書記官
任同府咸鏡南道知事(二等) 笹川恭三郎
栃木縣書記官(總務部長)
任臺灣總督府內務局長(二等) 山縣三郎
拓務書記官(南洋課長)
任同府文敎局長(二等) 島田昌勢
臺灣總督府專賣局長
任同府殖産局長(一等) 田端幸三
高知縣知事
任同府交通局總長(一等) 泊武治
臺北州知事
任同府專賣局長(一等) 今川淵
臺南州知事
任同府臺北州知事(二等) 藤田傊次郎
臺灣專賣局參事(庶務課長)
任同府新竹州知事(二等) 赤堀鐵吉
臺灣地方理事官(臺北市尹)
任臺中州知事(二等) 松岡一衞
臺灣彰化郡守
任同 府事務官(二等) 福本增一
臺灣專賣局事務官
陸軍二等主計
任同府臺南州知事(二等) 川村直岡
拓務書記官(司計課長)
兼任同府事務官(二等) 杉田芳郎
拓務省拓務局長 高山三平
臺灣交通局總長 堀田鼎
同 內務局長 小濱淨鑛
同 殖産局長 中瀨拙夫
同 文敎局長 深川繁治
同新竹知事 增田秀吉
同台中州知事 日下辰太
依願免本官(各通)

本社參觀(十六日)

▲養正學校生徒三十二名 朴鳳陽氏引率下 本社見學
▲就明學校生徒七〇名 崔載喚氏引率下本社見學

世界마라손制覇

孫南兩選手褒賞式



今夏 伯林에서 열린 世界올림픽大會에서 마라손競技에 第一着과 第三着으로 優勝을한 孫基禎 南昇龍兩選手는 來十七日 때를가리하야 京城에 凱旋한다。本社는 일즉 發表한바와가티 兩選手의 功勞의큰것을 表彰키위하야 左記와 如히 孫基禎、南昇龍 兩選手에게 賞牌를 授與하기로되엇다。

時日 十月十九日午前十時
場所 本社大講堂
主催 朝鮮日報社

防備制限存續案 米、拒否키로決定

太平洋問題의全般的檢討는一考하나 現狀대로는受諾不能

【華盛頓十五日發同盟】米國國務省은 太平洋防備制限繼續案에 對하야 愼重히 審議한結果 右를拒否하기로 決定하엿다 國務省의 方針은 如左하다
一、太平洋問題를 全般的으로檢討하는것에對하야는 一考함에 吝치안흐나 現狀의 太平洋防備를 그대로容許할意思는업다
一、英政府의 提議는 單純히 打診하는程度임으로 十一月三日의 大統領選擧를압두고 國情安定을 缺한時期인만치 强觀히 回答할必要는認定치안는다
一、十二月三十一日의 倫敦條約失效前에 何等事態가 或은變化할지도몰은다

建川中將北平着

【北平十五日發同盟】中國滿洲視察의建川美次中將은 十五日午後六時承德으로부터 北平到着, 即時松室少將主催의 招宴에 出席 宋哲元、秦德純氏等冀察側首腦部와懇談, 十六日다시 宋哲元氏를訪問, 北中問題에對하야 意見交換을하고 十七日通州에 冀察政府를訪問, 殷汝耕長官과 會見, 同日天津에赴할 豫定이다

意外의波紋甚大로 白國政府聲明發表

【브륫셀十五日發同盟】白耳義政府는 皇帝레오폴드三世陛下의演說이 歐羅巴全土에 亘하야 意外의 波紋을 捲起함에 驚愕하고 十五日夜 非公式으로 다음과 가튼 聲明을하엿다
一、白耳義政府는 外國軍의 侵略에對하야 各國政府가 共同安全保障을 하야주기를 希望하나 他大國의 侵略을바든境遇 나아가 共同援助의 任에當할것은 困難하다 皇帝의宣言도 大體以上의 主旨에 不過하며 따라서 從來의 國際公約을 無視하는 意圖는 全然업다
一、佛國과의 作戰協定은 一九三五年三月交換公文에 明瞭한것과가티 技術的措置이요 中立政策과 何等牴觸은업다
一、白耳義政府는 國際聯盟을脫退할意思가업는것은 勿論、로카르노締約의結果 西歐羅巴安全保障에 協力하야 어데까지던지 集團安全保障體制를支持할것이다

人事·集會

▲東淳二氏(加平警察署長)新任人事次來社
▲伊藤勝氏(京城鐵路警察署勤務)新任人事次來社
▲平林米一氏(京城東大門警察署勤務)同上
▲李瑛九氏(同德女子普通學校長)夫人永訣式을十八日午前八時半自宅에서擧行
▲永井壽氏(廣州警察署長)轉勤人事次來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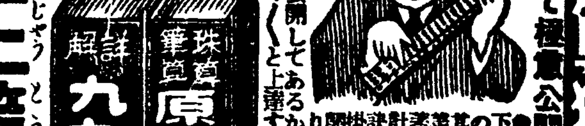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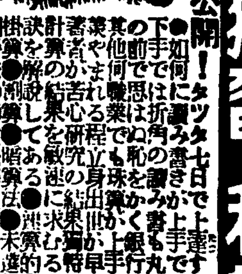
八面鋒

◇白耳義皇帝今日의 歐洲政局은 大戰前의 그것과 갓다고 歐洲의 警鐘을 亂打。
◇아닌게아니라, 戰爭이이러나자 第一 먼저 蹂躪될것은白耳義。
◇蹂躪된 後에 同盟條約이 効力이 發動되드래도 四日後의 藥方文。
◇白耳義가 占領되야 가장 脅威를 늣기는것은 佛國보다도 英國。
◇白國海岸에서 英國을 向해쏘면 大砲는 또버海峽을 넘어가는 때문。
◇이 말을 듯고 英國이 그대로 잇슬理는 萬無。
◇이리하야 歐洲政局은 一層緊張。
◇西大門刑務所 看守等 職權을 惡用하야 收賄 證據湮滅 詐欺未遂等 嫌疑로西大門刑務所에 收容。
◇犯罪가 事實이라면 官紀紊亂도 言語道斷。司法當局의責任도 未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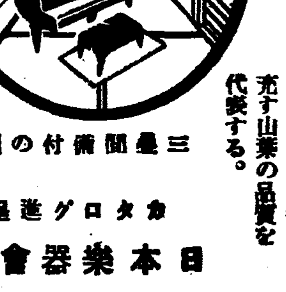
「유롭아」에 처음 드러간「예수」교

「예수」교가 처음으로 「유롭아」에 드러가기는 성에 드러간것인줄은 이미 말하엿다 그때는 처음으로 밋기를 작정한 「루듸아」라는 녀인과 그의 집이며 옥사장이와 그의 작정함을 비롯하야 그후에 「데살노니가」에 이르러서 전도한 결과 권한 「헬나」인도 큰 무리가 밋고 귀한 녀인들도 적지 아니하엿다 그리고 다시 「베뢰아」에 나려가서 전도한 결과 밋는자가 만코 또 「헬라」의 귀한 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한것이다 이러케 「유롭아」의 전도는 조흔성적으로 진행되엿다 그러나 아주 평안 무사한 가운데 된것은 아니오 혹은 애매한 무소로 옥에 가치기도하고 성중에 괴악한 무리들의 충동을 당하기도하고 혹은 몰매도 하엿다 이러한 고난중에 잇서서도 능히 이기고 전도하야 성공한것은 무슨 능력을 의지함일가

첫재는 성경의 공효이다 전도자「바울」이 전도할때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바다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사신것이 마땅하다 함을 말한것이다 구약의 주요 목적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친 허락하고 예언한것이 만흠 신약에 기록된 「예수」의 행적은 여합부절히 구약 예언을 응한것이다 둘재는 전도자「바울」의 신념과 인격의 감화력이다 「바울」이 「데살노니가」에서 전도할때에 신자들을 사랑하야 복음으로만 줄뿐 아니라 생명까지라도 저희게 주기를 즐겨하엿것이오 조곰이라도 무엇을 바드려하지 아니하엿다 그래서 사역자된 생활비도 자수로 밤낫 일하야 벌어먹으며 전도한것이다 그리고 때를 따라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계도 하기를 어머니가 자기 어린 아희를 기룸과가티 또는 아비가 자식에게 하듯 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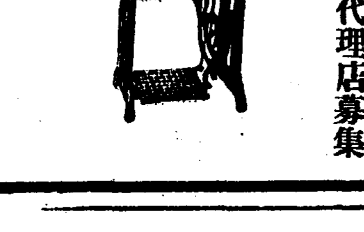


▲そろばん下手では出世が出來ぬ
新式速成 珠算獨習の秘訣
▲圖解で極意公開!
大景品 極上等算盤
珠算速成術 原理 九九原理
特價一圓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支配人採用
銀行、會社經營手腕家履歷書送附面會日通知要身元保證
京城西大門入口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創業五十周年記念發賣
山葉ピアノ ミジエット型

三疊間備付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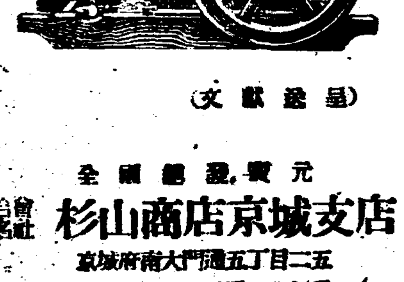
大きさ― 三疊間にも容易に備付け出來る。
値段― 堅牢の値段で平素が備付出來る。
品質― 全國需要の九割を充す山葉の品質を代表する。
カタログ進呈
日本樂器會社
本社 濱松市 京城本町一丁

院長 醫學博士 李丙
副院長 醫學士 河野武
外科 一般 レントゲン科
植村外科病院
入院隨意
京城府永樂町二丁目八五
電話 病院用 本局 〇二七〇番 自宅用 本局 一七九二番

コントロールミシン
十五種 蛇ノ目ミシンの 嬌矢

代表的國產
一郡一店代理店募集
朝鮮總代理店 楠商店 京城鐘路二丁目二十七番地 電話光三九六番

장갑
製造家를求함
○年中無休……收入確實
本業은小資本으로서京鄕을莫論하고 婦女子들이 容易하게製造, 製法은二三日의講習으로充分, 製品은一手로引受、綿絲는供給하여드림으로서遠地에서라도不便업시 取引할수잇슴, 目下有利한條件으로서製造者急募中 詳細는通知次第說明書無料送呈
京城府黃金町五電停前
朝日軍手京城支店 電話本局(2)二七五三番
本店·大阪·支店·東京
平壤府櫻町五三 朝日軍手營業所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局(2)一五九七

クボタ
石油 輕油 發動機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產品

(呈送獻文)
謝恩特賣 蓄音器景品附
自九月一日 至十二月末日
全鮮總發賣元
合名會社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長 882番 4784番

돈모히는조흔家庭工業
信用잇는最高의會社意氣잇는大事業紹進
◎偉大한二大工業

第一의工業은우리 日常生活上不可缺의世界的消耗品으로서 婦女子製造容易
第二의工業은家庭總出動
大阪港區市岡四
內外貿易 株式會社

恩給
長期低利立替
京城授恩町一六〇 鄭商會

蜂蜜
優良品은必히平壤 西城里石泉園 平壤蜂蜜販賣所로 (案內書進呈)

醫師招聘
但 京釜沿線
要本社庶務部에履歷書提出

朝報案內
會計 出納係採用 年齡二十以上要身元保證
履歷書持參本人來談하시오
京城西大門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未來의 "마라손王"에 禁足의 區域制限

市內公認코ー스를 改定實施

熱狂的應援도 許可制

동일배림픽에서 조선청년 손긔정(孫基禎) 남승룡(南昇龍) 량군이 단연히 세계각국선수들을 정복하야 그일홈이 천하에 노파지게되자 조선안에잇는 소년 청년 학도들은 제각긔 나도 장래의 손긔정이 되여보라라는 불타오르는듯한 원대한희망으로 낫이나 밤이나 떼욱이 서울의 거리에서는 마라손연습하는 사람들이 무척 만하젓다 이로말미암아 차마의 교통이 번잡한 길거리에서 각금사고가 생기는 일이 만하서 경찰당국에서도 적지 머리를 알코 잇는터인데 드듸여 경기도경찰부 보안과에서는 얼마전부터 체육게의 책임자들과 협의한결과 서울거리의 『마라손코ー스』에일부를 제한하기로되여 실행일부터 이것을 실시하기로 되엿다

경성시내에서는 다음구간에제한하야 금하기로 되엿다

(가) 종로이정목교차점-남대문통-길야정일정목정류소
(나) 부청압-황금정 사정목십자로
(다) 광화문십자로-종로사정목십자로
(라) 광화문십자로-남대문

그리고 도내전반적으로 적용하는것은 다음과갓다

전조선육상경기협회주최의 「마라손경기」 련합은 일본육상경기련맹 경기규측에서 공인한코ー스를 사용하기로 하고 다만 그련습은 전긔 공인코ー스의 경우일지라도 총독부아프로부터 태평통 경성역전 길야정일구 정류소에 이르는 구간의 사용은 경기전십일간의 긔한하야 보도(步道)의주행(走行)을 인정한다

마라손경기때에는 구호(救護) 또는 심판을 하기위하야 사용하는자동차 세대이외에 자동차혹은 자전거등으로 응원하는것을금한다 이자동차에는 쉽게 부간할수잇도록 흰베조각(白布)에 필요사항을 긔재하야 표시해야한다

마라손경기를 하려할때에는주최자로부터코ー스출발지 도착지 및인원, 시간 기타 필요사항을 출발지관할경찰서에 신고하야 허가를 어더야하며 금지구역밧게서 할때에도 역시 갓다

僚友의 歡送속에 孫君今朝東京發

羽田發旅客機로 福岡서 一泊

明日午後一時半 汝矣島着

【東京支局特電】세계올림픽·마라손의왕자 손긔정(孫基禎)군은 그동안 동경에서 각방면의환영을밧고잇든중 십륙일오전 여덜시사십분 가을바람나부끼는 동경 우전(羽田)비행장에 모교양정고보교유 황오(黃澳)씨와함께 정복정모를쓴 용자를나타내이엿다 손군을전송하는 환송객중에는 동기올림픽대표선수 김정연(金正淵) 리성덕(李聖德)、장우식(張祐植)제군과 전회 올림픽마라손선수 김은배(金恩培)군등도잇섯다 다수의전송객들에게 둘려싸여 일일히 인사를 드리면서 그리운 향리를향하는 손군의 얼굴은 희열에 넘처 흘럿다 이리하야 본사동경지국장 신태익(申泰翊)씨와 석별의 구든악수를맷고 기체에 몸을실엇다 동승의 려객들까지도 군에게 경의를 표하엿다 이날오전아홉시 정각에우전비행장을 리륙하야 일로서쪽으로 향하엿는데 도중복강(福岡)에서 하루밤을 지나고 명십칠일 오후한시반경에 여의도(汝矣島)비행장에개선할예정이다 손군은 우승자의기념품 참나무(槲)화분을 엽헤끼고 동경을 떠나며 전송하는 긔자에게 다음과가티말한다

「백림을 떠난후 항상꿈속에그리든 경성에 도라가게되니 감개무량합니다 귀보를통하야 고향에 게신여러분에게 감사의뜻을 표하야 주세요 일기만조흐면 내일오후한시반에는 경성에 닷겟지요!」

大阪通過【大阪支局電話】마라손의 우승자 손긔정군은양정고보교유황오(黃澳)씨와 함께 동경으로부터 실행일 열한시이십분 대판에도착하엿다가 당일오후두시이십분 대판을 떠나 복강(福岡)으로 향하엿는데 복강에서 일박하고 명일의 비행편으로 경성에도착할 예정이다

諸員齊戒參集 盛大한祈願祭

京城神社祭第二日

국폐소사경성신사의 국폐사렬격(國幣社列格)의 봉축대제 륙지날인 십륙일의 차례는 아츰열시부터 동신사압해 궁사(宮司) 이하참렬원일동이정한자리에착석하야 장엄한제의(祭儀)가 잇슨뒤를이어 오후한시반부터는 대제정부위원장이하 당번구각게장이 참집하야 재게긔원제(齋戒祈願祭)가 집행되엿다 이날 전시내에는 봉축 들재날을마즈니만치 점차그긔분이농후하야 대단한번성을이루엇다

不義의 男女送局

현직순사가 남의애처와 불의의관계를맺고 본부에게 고소를 당하자 시내각처로 경찰의눈을 교묘히 피하여다니다가 드듸여 얼마전에 창신정(昌信町)에서정부(情婦)와함께 검거되여 그동안 동대문서에서 취조를맛치고 불구속(不拘束)으로 긔소의견(起訴意見)을부처 금명간 일건서류를 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 넘기게되사건이 잇스니 그내용은 다음과갓다

원적을 평양강서군 수산면(江西郡水山面)에두고 시내 신설정 삼배휴실구번지의 일배휴실호에 주소를둔 하동주(河東周)(二〇)는 소화구년봄부터 시내본정경찰서에 근무하든중 우연한긔회로황금정사정목에서 사소한장사를하고잇든 림희창(林喜昌)의 처김간란(金干蘭)(二〇)을 알게되자현직순사의 신분도 이저버리고불의의 사랑에 마음을태우고잇든중 작년봄에 전긔림은 그의처를데리고 친형이잇는 전남광주부불동정(光州府不動町)으로 이사를갓다가 가을에는 다시경북 대구(大邱)로 옴겨가버렷다

남북철리에 애인을빼앗긴 하동주는 밤낫으로 사랑의 열병에 시다기다못해 용감히도 금년이월 어느날에는 전긔간란이를 경성으로 불러올려 황금정 모처에서 본격적으로 사랑의단꿈을 꾸기시작하니애처를빼앗긴 본부림희창은 고소로 경찰당국이이것을알게되자 그는금년오월 징계면관의 처분을 밧고마럿다

그후로부터 이들에게는 사랑의 도피행이 시작되여 시내각처로 경찰의눈을 피하여다녓스며 사나이는 면직되자 백방으로분주한결과 겨우 복덕무진회사외교원(福德無盡會社外交員)의 자리를 어더가지고 생활비를버러왓스며 녀자의배에는 벌서불의의 씨가 움트고 잇다는것이다

晉州二班城面에 六十餘戶가全燒

十六日午前十時出火

【晉州支局特電】경남 진주군 이반성면사무소(晉州郡二班城面事務所) 부근에 십륙일 오전열시쯤에 별안간에불이나서 불은단번에 련접한이웃집에 번저서 오후 한시까지에 륙십호를 태워버렷다 불은 이날오후 세시까지도 작구타고잇섯다 이급보를바든 진주경찰서에서는 곳소방대와 경찰관다수가오후한시반에 현장에급행하엿다 원인과 피해정도는 아직알수업다 (오후세시반착전)

九死一生의南蕉影脱出譚

魔窟呻吟六個月 奇智로免禍復讐

悪中國人은大邱署에引渡

아직도廿餘名殘在

【大邱】지난구일밤 열두시쯤되여 대구경찰서에 삼십미만 되여보이는 어여쁜 조선녀자가 헐벗긋게생긴 중국사람 한명을 끄을고 와서 『이도적놈을 자바주시오 이놈은 나의 원수이외다』하면서 구사일생(九死一生)한 고생의 전말을 일일히 눈물석거 토설하야 원수를 고발한사실이잇다。

그녀자는 경상남도 [illegible](慶尙南道[illegible]山邑)에사는 남초영(南蕉影)(二一)인바 살길을차저 녀자의 몸으로서 어린자식을압세우고 중국천진(天津)으로 향하는 차중에서 중국사람한명과 동행하다가 지방지리에 서투른것을 긔화로 전긔 중국인은천진으로 인도한다 하면서 기픈 산중으로 다리고 가서 악한의 소굴에 팔러먹고 도주하엿는데 이녀자는 지옥가튼 악마의 소굴에서 륙개월만에 탈출하야 자긔몸을팔어먹은 중국사람에게 복수하고저 그의소재지를 엄탐하든중 그자는 제물포인천(仁川)에 잠숨하엿다는 소문을듯고 인천으로 건너가서 백방으로 탐문한결과 그자는 대구(大邱)로전주하엿다는것을 탐지하고 대구로와서 부내각중국인집을 모조리 수색하든중 부내 대화정(大和町)금곡원(金谷園)료리집 고용인으로 잇는것을 탐지발각하엿는데 범인은 저의죄악이이녀자로말미암아청천백일미테 탈로되엿슴을 전도를비관하고 음독자살하려다가 녀자의민활한 활동으로 말미아마 목적을달치못하고 드듸여 녀자에게 체포되여 경찰서로끄을려온것이라한다。

◇―◇

장면신생활을하순쯤되여 남초영은 천진이살기조타는 소문만듯고 내고향을 눈물로써 하직한후 세살먹은어린자식을 압세우고 녀자의 몸으로서 천진을향하야 모험의길을 떠낫다 세상인심의 반경향에웃긋을 몃번이나 적신 남초영은 누구에게나 친절히하엿다 이것이 구사일생의 험지에쓸어너흔 유일한동긔와 도화선이되엿다 그가 대구(大邱)역에서 우연히 산동성래양현현우촌(山東省萊陽縣賢友村)에사는우영진(劉永進)(三)이란 중국사람이저와가티 천진으로간다는말을듯고 떡도기뻐하엿스며 중국인의 일시의 술책적친절에 감사하야이를미덧다고한다

그리하야 인천수상서원에게중국인의 시키는대로 가튼부부간이라고 경관의조사를 속여가면서 무사히배를타게되엿는데 인천서 천진직행을 타지안코 연태(煙台)로가는 배를탓다고 한다 연태에서 상륙하야 동행하든 중국사람은 자긔고향을거처 천진으로가자고 끄이는데 지리를 알지못한 남초영은 그남자가하자는대로만 아니할수업섯다 그리하야 연태에서 약삼백리나되는 현우촌(賢友村)이란 곳을하로만에 도착되엿다。

이곳에 이르자 동행한 중국인은 악성을나타내엿스나 세상에물들지못한 초영은 그래도알지못하엿다 그곳에 조선녀자가 십여명이 유인되여 매일눈물로써그날 그날을 보내고잇는데어녀자들을 통하야 그곳이과연악마의 소굴인줄 비로소 알게되엿다한다 남초영은 탈출을 계획하엿스나 감시가심하야 속수무책이엿다。

날이갈사록 초영은 마음이초조하야 그악착스러운 악마의소굴을 밤낫으로 빠저나오려하다가 발각된이후로는 감금을 당하고 대소변까지 자유를 주지 아니하엿다。 이마을에서 이주일동안지난후에 다시 악한배들은 상의한끄테 현우촌에서 약이십리되는 룡서향룡마가박촌(龍西鄕東家泊村)제룡구 만세청(萬世淸)([illegible])에게 팔리여 가게되엿다。

하늘이 문어저도 소사날구녁이잇다는 말은잇거니와 인정과 도덕을 조곰도 차저낼수업는이 악마의 소굴에서 과연 구출될줄이야 그누구가상상하엿스랴? 그곳에잇는 조선녀자로써 광주관광리(光州觀光里)조만식(曹萬植)의 동생이란 녀자가 이절박하야가는사정을 알게되여 그동네 중국민으로서 현재모학교교장으로잇는 만자양(萬子陽)이란사람을 통하야 청도시해박로(靑島市海泊路)십오호에잇는 조선사람으로서 방금 중앙의원(中央醫院)을 경영하고잇는 김윤식(金允湜)에게 이사실을 급히알리여 김윤식은 시각을노치지안코 래양현장(萊陽縣長)에게 교섭하야 중국군대의 출동으로이 남초영은 구출되엿다고한다

▲殘存者氏名
▲群山上水町九〇八 [illegible]
▲東萊邑 金德守妹氏
▲光州郡大正町一八 尹淑守
▲光州觀光里 韓順伊 崔順伊 崔養林 등이라하며 범인의 소굴인 장소는
▲山東省萊陽縣賢友村
▲山東省萊陽縣龍西鄕東家泊村

(사진은 남초영) (끗)

期限도經過前에 典執物任意處分

常套的手段으로更票拒絕

걸려든不正典舖業者

부내룡산서 사법계에서는 리태원정(梨泰院町)에서 전당포영업으로 부명을 듯고사는 사엽호란(四葉孝里)-가명-은부정전당영업의 혐의로방금 엄중히 문초하는중인데 그 내용은 보광정(普光町)십삼번지 한은쇠(韓銀釗)라는사람이 얼마전에 어떤 귀중품을 그전당포에 자핀지 얼마안되여 바로 전당표를 분실하고 말엇스므로 즉시 이 뜻을 사엽에게 일르러갓든바 그의말이 『그대가 너흔 물건은 이미처분된지오래다』라는 한말로 갱표(更票)를 거절하므로 『그것은 불법이 아니냐?』하고 서로 힐난한끄테 한은쇠는 바로 이사실을 소관 룡산서에 고발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서에서 엄중히 내사한결과 과연전긔 사엽은 전당입자가 자피는 물건으로 갑나가고 탐나는 물건이 잇스면 각금 그가튼 상투수단을써서 갱표하려오는 사람들의 물건을 긔한도 채넘기전에 빨리 처분해 버린일이 수십가지에나 달한것이 판명되엿슴으로 그서에서는 그를 엄중히 처벌해서 이긔회에 부정한전당업자들을 일소시길 방침이라한다

女商新築場서 行旅老屍發見

십륙일 오전네시쯤에 부내홍제정(弘濟町)녀자상업학교(女商)신축장에서 행려사망자한명이발견되엿는데 소지품으로 그의성명이 양영종(楊永宗)(五九)이라는것은 알엇스나 주소와 죽은원인은 아직 알수업스며 상처가튼

丹楓노리會員은 午後八時까지驛頭에

본사주최 『제삼회경성상품업자단풍노리대회』는 예정과 가티 천하절승 금강산(金剛山)으로 향하여 금십칠일 오후아홉시사십팔분 경성역 발림시렬차로 떠나게되엿는데 사고로는 회원여러분에게 출발정각보담 반시가량 다거서 오후여덜시까지 경성역으로 모히도록예고햇지마는 여러가지준비상 좀더일즉 모힘을요하오니 회원여러분은 오후아홉시까지 경성역으로 모혀주시기를 바라는바이다 그리고 자세한주의사항은 당야 경성역에서 여러분에게 지시하게될것이다

死刑囚! 또兩名

赤衛隊事件許允燮과 無政府主義者嚴舜奉

◇…十五日、上告棄却의判決

십오일고등법원에서는 또두사람이 사형판결을 바덧다 소화구년오월이래 중국공산당의 지시를바더적위대(赤衛隊)에 참가하야 반동분자를 죽이고 또 공산주의사상을 선전하엿다는혐의로 일심에서 무긔징역 판결과 복심에서 사형판결을 밧고 고등법원에 불복상고하여온 허윤섭(許允燮)(三九)과 소화팔년 삼월 중국상해(上海)에서 당시 주중일본대사 유길(有吉)대사를 암살하려꾀하고 또 소화십년삼월에 전상해조선인 거류민부회장 리용로(李容魯)를 권총으로 쏘아죽인혐의로 일이심에서 모다 사형판결을밧고 고등법원에 상고해온 무정부주의자 엄순봉(嚴舜奉)(三一)에 관한치안유지법위반및 살인사건에 관한공판은 십오일 오후세시 고등법원에서 히트우(樋口)재판장주심촌전(村田)검사관여미테 열리여재판장으로부터 각각 두피고에게 상고기각판결을 내리여 그들은 모다 원심대로 사형이확정되엿다

府民不便莫大

曙橋工事遲延으로

【鎭南浦】진남포부 금년도토목공사비는 경상비이만칠천이백오십원 림시비 십사만오천오백오원 수도적립금 십이만오천오백구원으로 주요한 공사는 일이공사를 완료한것으로 과년도조월의 억량리매립제이긔분, 제이긔시구개정과 하수개축공사등이며 방금공사중에 잇는것이 비석리 마산리의도로수선 대두리매립과 서교(曙橋)공사등인대 서교는 진남포부 중요지대로서 교의 가설공사로인하여 부민들의 불편이 막심함으로 하로밧비완성되기를 요망하는바이나 공사착수한지 삼사개월된 오날까지 공사가지연되여 완성계약기일인 금월말까지는 약반부밧게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것이라고하여 일반부민의 비난이 놉다고한다

◎特設 呼吸器病無料相談
東光醫院
專門科目 內科 小兒科 X光線科
◎入院往診에應함 隨時
京城府貫鐵町一八四番地(大廣橋近處)
電光四〇番
東光醫院

本月末限一割引特賣
慶北榮州邑內
(定價表進呈)
人蔘商會

運動競技

神宮競技 第八日戰績

第十二回 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 第八日은 十六日 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陸上競技一般男女選手權、專門部準決勝、籠球男女中等準決勝及專門部準決勝、野球、軟式庭球中等學校各道對抗競爭等이 열리엇는바 各種競技의 成績은 다음과갓다

陸上競技部

【百米豫選】▲A組1吳殷仁(慶南)一一秒四 ▲B組1金昌會(黃海)一一秒八 2內田(龍中)一一秒八 ▲C組1韓諸鎬(遞信)一一秒六 2小松(黃海)一一秒八 ▲D組1小松安(黃海)一一秒 2李鎭爽(仁商)一一秒 ▲E組1福田(朝鐵)一一秒六 3金鍾洪(平北)一一秒九

【千五百米決勝】1朝倉(遞信)四分一四秒 2尹光鎭(平南)四分 [illegible]

【女子六十米豫選】▲A組1沈府善(慶南)九秒2高野(沙里院)九秒八 ▲B組1朴玉姬(海州女高普)八秒九 2根木(一女)九秒 ▲C組1飯田(全南)九秒一 2今田(女實)九秒二 ▲D組1李淑(進明)八秒六 2佐佐木(一女)八秒六 ▲E組1磯淸(慶南)八秒八 ▲F組1尹玉(大邱女高普)八秒九 2宮川(平壤)佐藤(二女)九秒四 ▲G組1小倉(平壤)八秒九 2竹實(全南)九秒三 2河野(一女)九秒五 ▲H組1山田(仁女)九秒

【女子二百米豫選】▲A組1山本(朝鐵)一六秒一 2崔萬英(黃海)3金鍾愛(釜正)一六秒 2李章完(黃海)▲B組1李章完(黃海) 2蔡錦南(一高)一八秒三 【女子二百米豫選】▲A組1千葉(沙里院)三〇秒六 2田仲(一女)三一秒 ▲B組1藤木(一女)三二秒 ▲C組1鎌倉六 2大邱三二秒八 2木下(元女)三二(二女)三〇秒二

八秒八 3洪正婉(平南) 4朝日(成北) ○秒四 ▲D組1森永(海州女)三〇秒四 2李文貞(進明)三〇秒六 ▲E組1內田(一女)三一秒九 2湯原(海州女)三三秒四

【女子走高跳決勝】1李永實(海州)一米三三 2伊藤(龍谷)一米三三 3黒田(元町小) 本山(二女) 一米二八 ▲以上一米二八

【投砲丸決勝】1柴田(黃海)一二米三〇 2小林(咸南)一〇米九八 3李朱文(全南)一〇米八五 4齋藤(咸南)一〇米八四

【百米準決勝】▲A組1福田(朝鐵)一一秒二 2金鍾洪(平北)一一秒二 2小松(黃海)一一秒六 3金昌會(黃海)一一秒五 3小松安(黃海)

【女子六十米準決勝】▲A組1李淑(進明)八秒五 2朴玉姬(海州女高)八秒八 ▲B組1飯田(全南)八秒九 2磯坂(龍谷)九秒一 ▲C組1佐佐木(一女)八秒六 2尹金玉(大邱女高)八秒七

【四百米豫選】▲A組1東陽(龍中)五七秒一 2文聖龍(黃海)五七秒三 ▲B組1三好(朝鐵)五二秒 ▲B組1吳組(?)(慶北)五三秒一 ▲C組1金寶九(黃海)五一秒五 2吳炳漢(平北)五三秒一

籠球部

◇男子中等校準決勝

【第一次】道商對二高決勝은 同日午前九時부터 高尾、大草兩氏審判下에 開始되엿든바 前半十二對十五로 道商軍 得勝하야 決勝戰에드러갓다

道商29(17 12…7 18)25二高

反	後	前	【二高】
0	3	2	吳世雄
0	2	10	金喜益
0	0	2	李秉晩
3	0	4	崔秋田
2	2	0	鄭容淳
5	7	18	

【道商】	前	後	反
李相勳	7	5	1
孫光善	3	2	0
柳永一	0	4	1
鄭四休	0	4	0
韓龍雲	2	2	3
	12	17	5

【第二次】大邱農林對平壤高普戰은 同日午前七時二十五分부터 平壤高普 林東洙、李文植兩氏審判下에 열린바 前半四十六對十三으로 平壤高普가 決勝戰에서 對時케되엿다

平高46(17 29…13 0)13大農

反	後	前	【平高】
0	8	0	李舒玉
1	4	4	李在潤
0	8	10	李好善
1	0	2	李相成
0	0	0	朴仁鎬
0	5	3	李成均
1	2	0	金永成
3	27	19	

【大農】	前	後	反
吳秉文	0	4	2
河秉洙	0	2	1
金大駿	0	3	1
金鍾守	0	4	4
曹鳳鉉	0	0	2
李守基	0	0	0
	0	13	10

仁商5 京師2

仁商對京師準決勝戰은 十六日午前九時四十分부터 石井(球)、中村、白石(壘)三氏審判下에 京師先攻으로開始한바 結局五A對二로 仁商軍이 이겨決勝戰에드러가다

仁商 2 0 0 2 0 0 0 1 A
京師 0 0 1 0 0 1 0 0 0
5A…2

◇投捕=(仁商)山口―佐藤(京師)三好―松本

◇排球部

男子中等校

第二高普2 (21 21…12 9) 0 第一高普
善隣商業2 (21 21 12…16 15 21) 1 京城師範
龍山中學2 (21 21…12 18) 0 第二高普
(以上準決勝)

女子中等校

元山高女2 (21 21…15 15) 0 同德女高
大邱高女2 (21 11 21…18 12 11) 1 龍谷高女
(以上第一回戰)

平實4 仁川3

平壤實業社全仁川戰은 十六日午後十二時半부터 京城球場에서 中村(球) 平井、石井(壘)三氏審判下에 平實先攻으로열린바 四對三으로平實軍이 勝捷하야 準決勝에서 大田鐵道軍과 對戰케되엿다

平實 0 1 0 3 0 0 0 0 0
仁川 0 0 2 0 1 0 0 0 0
4…3

◇投捕=(平實)朴賢明―松本(仁川)橋口―祭

專門部準決勝

普專102(53 49…23 4)27大豫

普成專門對大學豫科籠球準決勝戰은 同日午前零時부터 金炳德 鷲尾兩氏審判下에열린바 普專百二對二十七로 大勝하야決勝戰에서 法專과對戰케되엿다

法專決勝에 延專棄權으로

法專對延專戰은 延專棄權으로因하야 法專은 決勝戰에서 普專과 對戰케되엿다

◇女子中等部準決

女師23(15 8…13 4)17進明

【第一次】進明女高普對京城女師戰은 同日午後一時二十五分부터 大草南氏審判下에 開始한바 結局二十三對十七로 女師軍이 勝捷하야 決勝戰에드러갓다

滿都人氣總集中 拳鬪戰은今夜

本社大講堂에서開戰

朝鮮體育會主催의 第十七回 全朝鮮綜合競技 아마추어 拳鬪選手權大會는 이옥고 今十六日午後六時부터 本社大講堂에서 열리게되엿다 이에出場할 勇士는 咸興、光州、平壤、開城等地의 猛將과中央의 列强이總動員하니만치 滿都의人氣는 最高潮에 達하얏다(入場料一般三十錢、學生二十錢)

것은엇섯다고한다

天氣予報

概況 颱風은 琉球群島의南方海上에 잇는데 그狀況은잘알수업다 七六六粍의 高氣壓은 中國中部의 內陸과 朝鮮으로부터 日本海를 거처東北地方에 뻐치고잇고 滿洲方面은氣壓이 얏다。北滿은 曇天南滿과 朝鮮及 裏日本은晴天表日本은 曇天이엇갓고 琉球群島는 雲霧風雨가 잇슬것이다

豫報 京城地方의 오늘밤은 快晴이나 來日밤은 南後曇이일것이고 全道兩全區도 마찬가지이다

昨日最高 二三、六
同 最低 九、七
今朝最低 八、八
今日正午 十九度

써서내는듯이

極甚한頭痛을낫게하고、頭腦의疲勞를恢復하는獨特한妙味는、다른頭痛藥에서보지못하는노ー신의長處입니다。

現代科學은 全혀 非常한進步를보이고잇습니다、따라서 頭痛藥도 單只 頭痛을 停止식히는것으로는 今日의完全한 頭痛藥이라고는 할수업습니다 그것은 頭痛을곳치는 同時에 頭腦의疲勞를 回復식혀朦朧하얏든、頭腦가 뚜렷하게明快해지는作用이업스면 頭痛藥의 使命을 最後까지 다하얏다고는할수업습니다。

노ー신은 이目的으로서 創製된新頭痛藥으로
一、頭痛을 곳치는作用은 勿論이고 한거름더나아가
一、頭腦의 疲勞를 回復식히는作用을 兼有하얏습니다。

主効
頭痛·偏頭痛
頭重·頭腦疲勞
頭內朦朧·心氣倦怠
上氣·眩氣
二日醉·船車멀미

常用하면은 諸種의藥害를도읍고 心臟을强하게합니다、또胃腸에는安全無害함으로 頭痛의常備藥으로는 理想的입니다

藥價 .30 .50 1.00 2.00 5.00 etc

★全國藥店이나 百貨店藥品部에잇다

模範的 頭腦藥

ノーシン 노ー신

製造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有恒月報

京城有恒社藥品部의 壯擧
大衆體質改造에 積極進出

服藥家優待券 (一人一回에限함)

京城有恒社 歐米及 中國名藥의 偉大한藥効를 宣傳普及키爲하야 今月末日까지 本社에注文하시면 如左優待하오니 利用하시옵소서

一、强腎丸과 調經補胎丸은 二割引
二、日東淋藥、에로수、유ー고ー루、日東도구도루丸은 倍額進呈(即一劑注文하시면二劑進呈)

有恒社藥品部諸先生은 病으로 苦痛하는者의 가장힘센 相議處요 慰安者가되라고 恒常努力하고게십니다 그리고 더욱 治療方法을 그르처서 苦痛하는 患者의게 光明을주고 慰安者가되야 가장親切한全快指導者가됨니다 이것이 有恒社藥品部의使命임니다 못된 治療와無責任한藥이 病者의 一生에얼마나重大한 結果를주리라는 것을記憶하는 同時에 一刻이라도 速히有恒社藥品部新發明特效藥으로써危險을未然에防止하시옵기를 勸告하나이다

肺

독일コッホ박사가 신발명한폐병균엔

病患者의救世主
悲觀落膽 치말어라!
高級治肺藥 유ー고ー루

폐병은뇌점、부측증이라하는대독일「コッホ」박사가 세계적위대한 발견을하야 전지를진동케한 결핵균이폐를 파먹음으로생기는두려운 전염병인바 폐병환자의담을현미경으로 검사하면 약삼억만개의 놀나운결핵균이잇다 內務省統計에依하면일년간에 약오십만명이폐병으로 신음하야 그중약십칠만명의 귀중한 생명을빼앗기는 무서운악질이다 폐병에걸녀도초기는잠복성이만해서 여간집중키어려움으로 신경쇠약이나 위장병으로 알기쉽나 이와가티부지중병균은 지독히활동하야 이기삼기가되고만다。실상폐병균갓치 여러가지증세를이르키는병은업다。그러나 결핵균만업새면되는대 종래에는 아모효력도업는부적당한치료법을 과신하야 공연히 치료할때를 놋치고 폐병은 걸니면 죽고살지못한다고 한탄만하여왓다。

아모리악성삼기의 폐병이라도 꼭낫는약이라면 닷새나열흘의복약으로 신효함을환자자신이자각할것이다 有恒社藥品部에서는 불행한환자를구하기위하야 고심연구한결과 세계적신발명의 고급치폐약「유ー고ー루」를복용하면살균과배독작용을하야복약후기분이 대단상쾌하고 두통이나완고한열도나리고 구미가생겨 식욕이증진하고 원기가나서혈색이조와지고 쇠약을회복하야살이오르고 기침、도한、오한、숨가분것、피로하는증세나、혈담、가슴아푸고 역구리결리고、사지가아푸고 노곤한증세등에、綜合的으로作用하야 靈效를본다。별별약을다쓰고백방으로모든치료를하여도 낫지안어 고통하는분은 생명은귀중한것이니 일시라도속히高級治肺藥「유ー고ー루」를쓰시오폐병이아니고폐가약하시거나 폐병의의심이잇는분은 반다시예방적으로복약하시오

약갑 삼기용이십원、이기용십원、초기용오원、송료선금무료 다금인환삼십오전

人類의救世主「유ー고ー루」藥効는服藥者마다感歎한다

八個年이나된肺病이完治 固城郡邑東外洞 金化七

拜啓 日益繁榮之地仰祝不已第貴店發賣하는藥을服用하는中八個年이나되든肺病이完治되여서感謝의意를表하여삼가玆以通知합니다 餘不備禮

積年肺病으로苦心타가 一劑로根治 遂安郡大千面銅岩里 安鼎熙

生이積年肺病으로苦心을常하든中貴社의治肺藥一劑服用하고即時快差함으로隣家에李道善이라난者가肺病患中이옵기此藥을請求하야用時即差이옵고亦是百發百中이라如此함으로同於三神山不老草不死之藥으로認하고生은何人間病者를보면貴社에信用을說明하는바이요恩德을晝夜不忘이옵기玆以感謝狀을上達하나이다

이外에도各病에感謝狀이만사오나紙面關係로省略

載치못하야省略함

유ー고ー루 一劑다먹기前에完治 平南線寘池洞驛前晩荷里○○農園 金益○

謝狀 敬啓貴社業務繼續永隆하기를仰祝耳陳者鄙者所送治肺藥(유ー고ー루)는服之未了에完治該病하니使是更生歸青年이라、貴社藥効之神奇는心中欣賀萬萬、除百宣傳하야廣救可憐한患者하기를爲念耳日前에本農園으로移舍하엿나이다

유ー고ー루로得効이고藥効가一時的이아니고更發치아니한다고云 孟山郡智德面陽城里 方錫元

小生이유ー고ー루를購入服用하온즉果然効驗이有하온지라即時感謝코저하오나其藥効가一時的이나아인가하는念慮가有하옵더니五六朔을經過하와도更發치안사옵기玆以數字로感謝의意를表하나이다

無子·多病한婦人의게 壯談하는
동방 한방 婦人靈藥

調經補胎丸

此藥은 漢方秘方名藥으로 消病受胎한例가 坊坊谷谷에事實이證據로 傳波되야 至於草童까지라도 無所不知의 妙方仙藥입니다。 明日로미루지마시고 今곳注文하시요 只

「됴경보태환」은부인혈분을조케하며 경도를고르게할뿐아니라 혈적냉증을 외가병을 고치고 수태를잘하게하는「부인선약」입니다 그럼으로 경도가 제때에되지안코 흐르달을걸느며 혹은한달에두번식되거나 혹은 만키도하고 적기도하며 혹은여러달걸니고 혹은이상만에도 끈치기도하며혹은 겸게되거나 또혹은누렂하게되는등 무상시보다 다르게되는데 와경도가되라할때에나 경도중에 팔다리가아프며 혹은머리도아프며 전신이모다 아프기도한데시시로 머리가아프며 입맛이조치못하고 소화도잘되지아니하며 얼골에는 회색이업고 몸에는 살이오르지아니하는데 배속에서 무삼물치 가몰고 시시로배가아프고 며칠식알케되는데 일상손발이얼기를잘하고 낭큐달리처인일을잘하며 또여름이면은 더위를견듸지못하는데 하초가습하며 코가드르어이흑너나오고 괴악한냄새가잇서 남에게 이약이하기도 어렵게되는중이잇는데 례중이면 입덧이심하고 극히 고달프게지내게되는데와 수태가되지안하는데 자궁병(子宮病)와 여러가지증세가잇는데모다「됴경보태환」이제일입니다

약갑 한제七圓、송료선금무료 인환 오십전

補藥界의大王强腎秘藥
壯談하는 清朝의名藥! 微弱男女여 落心치마오!

精力減退、腎氣障碍는 人生의가장큰不幸이다 成功을바라고、幸福을願하는者는 몬저强腎丸을 服用하야 精力을涵養하라 보라! 現代의 大實業家大政治家는 모다絕倫한 精力家이다! 清朝宮中秘方으로서 男女補腎滋陰하고 살찌는仙藥으로서 한번服藥하야보면 千金이라도 不惜이고萬金이라도 아깝지안습니다、特異한點은 雖老衰之年이라도 青春의氣分을不衰하며 等閑하신 분도 腎氣를 發揮하야 興奮의神効는 驚歎하게되여집니다。

보신자음 **補腎滋陰** 동방한방

强腎丸

此秘劑는 一時的興奮劑가아니요 肉體의元力을 養成하며 精神을刷新케하야 史少年이됨、腎氣가發動하고 身體가强壯케되는 聖劑입니다。先天不足하고 神經衰弱하고 腎氣不發하고 下焦濕冷하고 貧血하고記憶力이 減退하고消化不良하고 身體瘦瘠하고 手足厥冷하고 精力衰弱하고 腎氣減退나 肺病한人은 此際에 躊躇말고一劑를服用하시요 健康한男女라도 氣力의 消耗를 防備하고 精力을 增進하기爲하야 本劑를 愛用하면 元氣가 益益旺盛케되며 形容이 豊滿케되며 溫溢하는 靑春의 源泉이 森함이업스며 따라早老와老衰를 防備할수잇게되고 老人도腎氣大發讚嘆하야 人生의興味가津津케될것이다。

根本的으로 壯元하는 腎氣强壯劑로는 强腎丸外에 업스며 每日에도 能豈强腎! 萬病이 下焦가 虛함으로써 생긴다 補藥을 쓰시라면 下焦 腎經에 置重한 强腎丸을 쓰라! 藥價强力用一劑拾參圓 중중용 一劑九圓(强腎丸은男女共用)註文은 京城有恒社藥品部로

奇蹟的靈効잇는洋藥의 補血强壯劑
에로수

本劑는 高貴藥으로集成한仙藥인대 其作用은 極用히 微妙한지라、造血作用과 元氣旺盛를 兼備하고 青春男女의 不滿을 一掃하야 愉快히 人生을 亭樂케하는 神秘的効果잇는 靈藥으로 貧血로 몸이衰弱한人、元氣陽氣업는 분은 老幼男女를 不問하고 一劑式必服하시오 老衰之人이라도 本劑를 服用十日에 特殊効力을發揮하고 能히 青年以上의 機能을 着着 復活케하야 精力倍增 活力旺盛 快感을 得하는 藥學史에 大書特記할 最新發見劑오니 廣告文은 簡明하나 藥効本位로 經營하는 有恒社藥品部를 信用하시옵소서

약갑 완고용十五圓 중중용八圓 경중용三圓五十錢

에로수를服用하야 十三年만에 孕胎하야 貴子息을 今年舊三月에 出生 茂山郡三社面 黃土岩作業場

弟가京城各處에各藥을注文하야使用하엿스나從是無効라가貴社藥을使用한結果神奇한特點으로神効가되여十三年만에孕胎하야貴子息을今年舊三月十八日에出生하얏기家和與事成으로和睦히보내게되얏습니다此로因하야너무도感謝하기測量업서一字書信하오니將來라도만히愛護하야주시오 敬具

에로수는現世의無比한仙藥이라고 鏡城郡鏡城面白雲洞 金珍模

生이去月에エロス一劑를服用한後로는虛汗이自然히업서지고食慾이以前倍以上이되고精神이明明한것은長時間의執務를繼續할지라도疲勞한줄모르고 에로수는現世의無比한仙藥이옵기에書字로感謝함을表하나이다 不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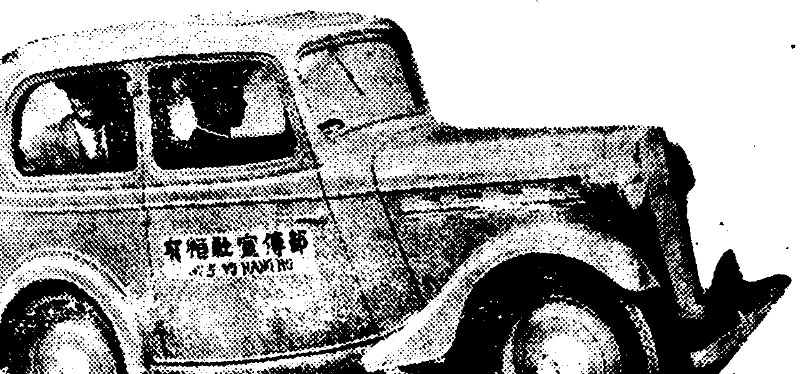
에로수는衰體가快活하야다시五劑를註文 信川郡加蓮面東湖里 柳炳殷

貴社諸先生主萬康하심을伏祝이오며陳者生之家嘗이數十人中服藥程度者가至於三四人故로當에「에로수」를得하야一次試驗에衰體가快活故로速速服用을恩惠이야感謝萬千이오며明經注文에완고용五劑를先金注文하오니迅速發付千萬來來連續注文爲料 餘不備上

有恒社地方宣傳部自動車出發
—特約店希望者는本社로申込하시옵—

甲班 (西北鮮을巡廻 間島을經由하야 有恒社新京支店에 到達하되 歸路亦 同一홈 (第三有恒號ダットサン))

乙班 (南鮮及江原道一圓을巡廻홈 (第五有恒號ダットサン))



在來梅毒藥으로 難却못하엿거든 服藥하라 六〇六호이 상뭇는 독일ホフマン박사가 발견한 梅毒균엔

일동도구도루환

매독은창병 당창이라고도하야 코나 신이떠러지는 무서운전염병인데 부모나선조의게 매독이잇서서 그병이 자손에게 유전(遺傳)되야생기는것을 선천매독이라하며 남자가 화류계 여자에게 전염하야 가정부인에게까지 전염시키니 이것을 후천매독이라한다 전염되는 즉시는 그다지고통치 안음으로 그대로두는분이 잇지마는 이것이 영구히 매독으로고생할 큰원인으로 그동안 병균은맹열히활동하야 피부나 근육이나 내장신경계통을 물론하고 사람의 어느곳이든지 새여먹는 참 두려운병이다 이병에걸니면 의례육공육호를주사나 일시적이지 다시재발하는것은 경험한 환자가 더욱잘아는일이며 유명한독일박사도 육공육호를만흔환자에게 실험한결과 매독의재발을 절대로 막지못하얏다고하얏다 매독에는 초기、이기、삼기、가잇는데 육공육호나 사약수은등 범법약으로 근치안되고재발하야 고통하는분은 하로밧비 유명한高級梅毒藥「일동도구도루환」을쓰시요 부부간 한사람에게 매독이잇스면 양인이모다약을먹는것이 제일아조되오 매독은 자기뿐만아니라 독이 자손에까지 유전한다는것을 생각하시오 코가헐고 붉고、목이쟁기고、눈이희미하고、머리가빠지고、팔다리가쑤시고 머리속이허러 부스럼이나고、몸에 여기저기 종기가터지고 국부에 부스럼이나거나 헐고가렵고 선천매독 삼기를지난靈藥 梅毒(梅毒性)당창 양매창 하감 요고네등 매독의철에꼭 쓰시오 구갑 기타부작용은 절대로업고 술、음식은 기름진음식만가리면 됩니다。

약갑 악성용삼기용九원 만성이기용五원 경중용三원 송료선금무료 인환삼십오전

類似藥에御注意! 日東도구도루丸은 醫師도 六〇六호로 낫지못하는 患者의게 投藥한다

三期梅毒을 일동도구도루丸으로完治하엿다는 感謝狀을보시라! 軍威郡孝令面中九洞一七三 鄭聖潤

生은雪上加霜의格으로生活의困難으로苦주하든中一生不治의病이라고한梅毒에걸리게되오니엇지고치기를바라스리까一圓二圓을겨우모어서이약저약을써보앗스나조금도差効가업스며無情의歲月은빠르게흘너서一年을經過하고半年을도지나습니다、인제는고칠道理가全無하다고自歎만하고잇섯든차에마친貴社의廣告를어더보게되엿습니다마는또번읽고두번읽어好奇心은생겻습니다그러나속는다는생각에주저하엿습니다 그러나속아보겟다는生覺으로三期梅毒藥을注文하엿습니다 藥品到着即日부터服用하야最終까지服하엿더니 病毒은全然根絶되여서다른사람과조금도다르지가업서젓습니다 이때의질거운부르지짐이야말로 과붓으로형용할수업습니다 이러한질거움을 두고진즉先生님전에感謝한글이라도쓸생각은잇섯습니다마는春秋病풍發動期를아지못하여엿태거지정연하엿습니다今春今秋를지나病根은조금도感動치못하겟사오니 完全히完治되엿다는感謝를올리여恩惠의萬一이라도갑고저하나이다

일동도구도루丸으로 大効를보고 親友의付托으로再次注文 定州南面西湖洞五八八 金鎭祚

陳者這間일동도구도루丸을服用하온바大効를보앗삽기玆以敬字로感謝의禮를表하오며親友의付托으로再次注文을敬請하오니일동도구도루丸代金九圓也를代金引換便으로迅速付送하시옵소서

日東도구도루丸을 服藥한후上京하야 血液檢查하엿더니 完治하엿다고 感謝狀이왓습니다

拜啓御貴台御健勝賀陳者貴店藥服用後 昨年九月上京하야二三回檢查한바無病하다고하고其病은떠러젓다고하기 또一回上京하야再檢查하엿더니 아주無病하다고하기貴社에通知하려고 하엿스나 多忙하야失禮하엿습니다 今後도愛護하여주옵소서 이만失禮합니다 五月二十五日 忠北永同○○金融組合 洪○植

도구도루丸으로全治更發치안는다 (特히匿名 ○○○) 全北泰仁

生은貴社藥品으로梅毒을全治하고完人生存이數個月되얏는대餘根의發生도아직全無하와感謝의意를仰達하옵나이다

淋疾로 呻吟하는 諸氏여!!
독일ナイセル박사가세계적 신발명한림질균엔

일롱림약
으로뿌리를빼옵소서

남녀림질 대하증에 한번걸니면 여간낫기어려웟다 그치료법과 약이 수천가지가되나 조금도 효력이업거나 다소 효력이잇다할지라도 또다시 재발하야 수년 혹은 일평생을 두고 고생하는 사람이만라 림질뿐아니라 엇더한 병이든지 약만바로마지면 단박에 병이떠러지는것이고 효력이업는약은 아모리 만히오래먹는다할지라도 낫지안는것이다 불행히 남자가 일시적쾌락을 엇기위하야 화류계녀자와 관계하야。이병에 걸니면 본인의고통은 물론이나 애매한가정부인에게전렴하야 병으로인하야 밧는고통은 두말할것업고 병균이자궁을침범하야 역시 생산을못한다 신발명 일롱림약은 남녀악성 완고 만성 외세가지 구별이잇는데 병증세를 기별하면 바로맛는약을 보내는데 아모리 악성이라도 한제만 쓰시면 씻슨드시되고 절대재발치안는신효한약으로 만주로만히수출이되는것을 볼지라도 가이짐작할수잇다 그리고 다른 약가티 결코 위가상하지안는다 이약은 바로살균을하야 소변으로흘녀보내는 강력(强力)한작용을하는데 아모리 숨어잇는균이라도 구축하는영약이오니 안심하고 하루밧비 쓰시오 부부간에 이병이잇거든 양인이갓치쓰시옵

一、수십년된 악성고질이나 재발한 완고 만성림질 여자대하증(적대하、황대하、백대하)림독성방광염、산증、섭호선념、자궁란소염、뇨도협착이찍건낫는신약이오

약갑 악성용九원、완고만성용五圓、급성용三圓

註文方法

註文은 病名을記入하야 藥價를 指定하시되 될수록 前金으로註文하시면 藥品을特撰하여 送料를負擔하겟습니다

萬一 前金으로 註文하시지못하실境遇에는 代金引換으로 註文하시옵 但 送料는實費를加算하나이다

注文은 總發賣元

有恒社藥品部

京城本局私書函第八十五號主
市內小賣部 京城苑南町百十九番地
長電話光化門一四三〇番·振替京城七九五六番

보구니사ー우 모자사시우!

언제나 여름인 「멕시코」란나라 가을이 어느철인지 겨울이 무엇인지 모르고 언제나 뜨거운 「멕시코」를 직히고 잇는것이 이 나라사람입니다。 거리에 나서면 부인네장사치가 독특한 풍정을보이고 잇습니다 머리우에 첩첩히쌋은 재양닙은 모자、온몸을 파뭇다십히 푸성귀바구니를 둘처메고서 용케도 균형을 취하야 것는것입니다 그리면서 「모자사ー우、복구니 사시우!」이런뜻으로 애련한 목소리로 외고갑니다。

家庭

어떤쌀이 조흔쌀 몰라서는 아숩다

알이안고루고 빗이 히지안고도 의레 나쁜것은 아니다

쌀처럼 귀중한 것도 업고 쌀처럼 필요한 것도 업고 또 쌀처럼 만히 다루는 것도 별로 업스련만은 그래도 우리네는 어떤 쌀이 어떤 것을 잘 아지 못 하고 잇습니다。 물론 아조 모르기야 하겟습니까만은 분명하고 똑똑하게 가려내지는 못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끼니마다 우리가 먹고 지내는 그 쌀에 대하야 그러케 무식해서야 쓸 수가 잇겟습니까? 어떤 쌀은 조코 어떤 쌀은 나쁘다는 것을 알아두시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보통들 절미(絶米)가 업서서 알이 고르고 개미가 업서서 비치 희것을 조흔 쌀로만압니다。요사이 와서는 흙으로맨든 분을 섞기 때문에 분이 섞기엇나 안 섞기엇나도 보는모양입니다 물론 알이 고르지안코 빗갈이 히지못한것은 조흔쌀이아닙니다。알도만흔 그것만 가지고서 꼿 조코 나쁘고를 단정하는것은 실업슨 노릇입니다。알도 고르고 빗갈도 히면서 조치안흔 쌀이 얼마든지 잇습니다。그러면 어떤 쌀이 조흔 표준입니까? 무슨 표준이 잇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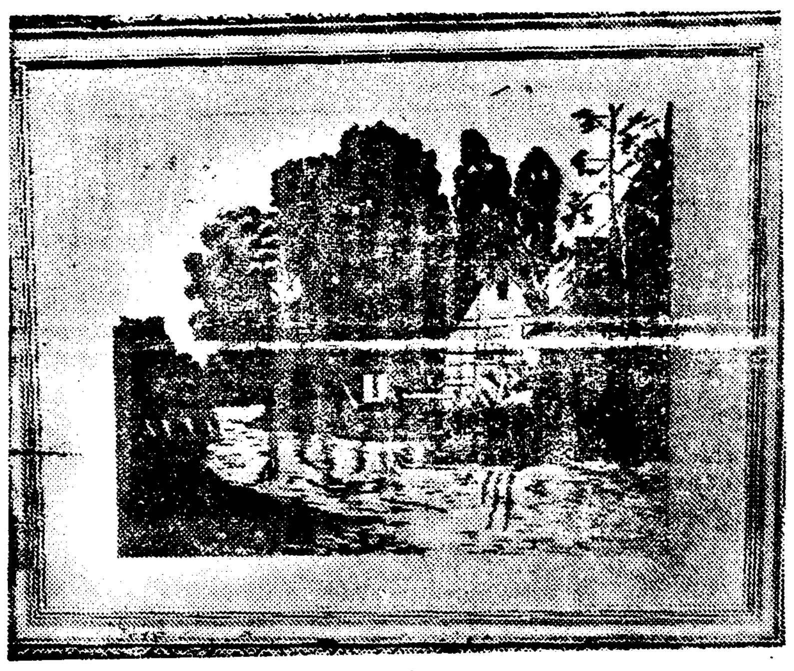
×

보통사람으로는 아모래도 정밀히 알 도리가 업습니다。할수업시 쌀전에맛기는수 밧게 업습니다。그러나 쌀전에서 장사속으로 상등미를 이등미라는지 이등미를 일등미라는지 어떠케 밋습니까? 장사치를 밋는다는것이 웃은 소리가 아닙니까? 본래 쌀에는등급이 다 매히어 잇습니다。그 등급을 딸아서 날마다 날마다 시세가 섭니다。그러나 그역시 전문가가아닌 이상 그 등급을 구분하야 내기란 곤란치 안습니까? 차라리 무리한 청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쌀전에서는 대개 이 등급 저 등급을 섞거서 팝니다。실사 그 표준을 잘구분한 대자 꼿소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그러니까 위선 첫재로는 미련은 쌀전을 정해노코 사다 먹을 것과 둘재는 다소 쌀의 등급에 대하야도 상식을 가저둘 것입니다。그러케 하면 생각한 정도까지는 속지 안코 조흔 쌀을 사다가 먹을 수가 잇습니다。

×

그런데 쌀비치 흰 것을 처지만은 거기에는 분을 발려서 흰것이 만습니다。그렛이 아니라 영양가치로 보아서도 하얀 쌀이 도리어 자영분이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을 섞근 쌀과 섞지 안흔 쌀은 아조 구분하기가 쉽습니다。죽 쌀알에 세로 골앙이 파저 잇는데 분을섞근것은 그골앙이 떡하야케 보이고 안섞근것은 그러치 안습니다。요사이는 배아미(胚芽米)라고해서 쌀눈을 부치어가지고 팔고잇습니다。그눈에비타민B가 잇다고해서 일부러그러케 하는것인데 말로만 배아미지 가짜도만습니다。그런데 배아미는 알이좀 고르지안코 비치좀히지안흔편이 오히려 조습니다。그리고 쌀눈이 적어도 팔십퍼ー센트만은 부터 잇서야합니다



가을川邊 學生美展初等部優選刺繡 同德女普校 卓成卓

兒童劇 행낭아이 ⑦

金虎俊 (全一幕)

慶伊、玉順、順子『聖玉이오빠 우리가 잘못생각햇서요 용서해주서요』『우리도이전 조흔사람이 되겟습니다』

順子『애 聖玉아 집에 아버지께선 우시면서 기다리신다 얼른우리가티가 응』

慶伊、玉順『그래 聖玉아 우리 가티가자 아직섯느니 용서해라』

泰植『聖玉아 자ー동모들이 그만큼 그러는데 가보아라 응 어서』

聖玉 (말업시 동모들을 처다보며 웃는다)

一同 (슬슬히 따라우스면서 한참 소리처서웃는다)

泰植『자ー너의들 그럼케 서로 웃고노니까 좀 조흐냐』(順子아버지 下手로우스며 나온다)

順子아버지『하하하하 그래그래 그러케 동모들끼리는 서로웃고 노라야지 하하』

泰植『아 이곳에 계섯습니까』(인사하고 一同머리감다)

順子『아버지 여기게섯수』

順子아버지『응 너의들 저聖玉이오빠하는 이야기 잘드럿지 그러치 동모들은 언제든지서로 사랑하야지 참 聖玉이오빠는 이전참훌륭하다 애聖玉아 너혼낫지 집에선 아버지께서 너를때리고 울기만하시드라 順子야 너의들인들 조흔일을 하여주나 다음엔다 조흔사람이 되겟지』

順子『아버지 머ー우리가 언제는 나뿐짓햇서』

順子아버지『허허 나뿐짓은업섯지만 아모것도 몰낫지 저ー오늘 順子어머니가 너의들을 위해서 맛잇는것을 만든다드라 다ー들 들어가보아라응ー』

順子『(뒤머리해서)아이구조와』

順子아버지『저ー그리구 聖玉이와 泰植이는 내일 시골로가기로 되엿다』

順子『네? 聖玉이가 시골로가요 아버지』

泰植『시골로 가다니요?』

順子아버지『응아버지께서 들께 퍽안돼다고 행낭사리를 그만두고 시골로가서 농사나 해서 너의들 올은 아버지가 되겟다고 하시더라』

(玉順、慶伊、順子、聖玉이 겨트로 몰려가면)

慶伊『아 聖玉이가 가면 어떠케』

玉順『聖玉아 너 갈터이냐 아버지께 여기잇자고 졸라 우리정답게 가티놀자』

順子『그래 聖玉아 너이젼 섭섭지 안혓지』

聖玉『아니 그러치만 나는여기가 실타 행낭사리가 실허서 늘 혼자 울엇단다 (오빠를보고) 오빠두 시골가는게 조치요』

泰植『응! 順子아버지 저는 이만콤컷는데도 늘 聖玉이와가튼 마음을 먹고 잇습니다。늘 順子나 宅에서는 우리를 조곰도 하인가티 생각해주신 일은 업섯지만 어쩐지 저의 마음에는 학교에서나 또 길에 다닐때도 누가 행낭새끼 행낭새끼 하는것가테서 퍽마음이 설엇습니다』

順子아버지『응 그럿케까지 어린마음이 괴로웟슬줄은 조곰도 생각못하엿다 너의아버지의 마음이야 오죽하엿겟니 泰植이도 언제까지든지 그러마음을 이저버리지말고 조흔사람이되여라 그리고 아버지께도 말슴드렷지만 이번이졸업이니 졸업하면 내가마타서 공부시켜줄터이니 아모쪼록 열심히 하여라』

泰植『네감사합니다 그러면은혜는 끗까지 잇지안켓습니다』

順子아버지『자ー그럼 어서여셧시 인데 들어들가자 (금시게를꺼내보고) (泰植이를 보고)저ー그리구 泰植아 이번 시골가는데는 저ー내땅을 좀 잘갈도록해 달라구 감독으로가게되엿다 또나쁘게 생각마려라 내땅이 네땅이오 네땅이 내땅과 가튼니깐 우리가전좀 친하게 지내보자 응 (아이들께)예들아 우리는 먼저 들어가 좀이야기가 잇스니 너의들 천천히 이애기 하면서들 들어오너라』

一同『네ー』(泰植이順子아버지와가티 上手로들어간다)

慶伊『애聖玉아 너내일 시골가면 편지나 좀해라 응』

順子『나는 네가가면 동모가업서진다』

聖玉『뭘 너의들 여럿이 잘들 놀터인데멀 이제 내가 쓸쓸하지』

順子『그러치만 집에는 누가잇서야지』

聖玉『나도 너의들과 떠러지는게 실치만……』

慶伊『얘 聖玉아 너 오늘일은 나쁘게 생각하지안켓지?』

聖玉『아니 慶伊야 조곰도 그런녀러는 말어라 내가 아까 운것도 다ー 행낭에 잇는게 설어서 그래지 나는 너의들게는 아모러케도 생각하지안는다』

順子『너 간뒤에 너의집에 놀러가께 아버지하구』

聖玉『그래 퍽와응? 집은 조그만치 모르겟지만-우리집이니까 나는 퍽 기쁘다』

玉順『너 너의집이 그러케도조호냐?』

聖玉『그럼 나는 남의집에 잇는게 거지가튼 생각이 나서……』

慶伊『聖玉아 너아까 인형이조타고 그래지 내 이따 아버지한테 조흔인형 사달래서 시골갈때 줄께』

聖玉『아니 그만둬 인형해서멀하니』

順子『나도주께 너 인형 퍽조와하니』

玉順『그럼 나도 줘야지 나는 책보하나 사주께 너학교갈때 보니까 보재기 책보더라 내 꼿가방사주께』

聖玉『구만둬라 우리오빠 남의 물건은 연필한개라도 못가지게해 너의들 우리오빠 그래 뵈두 퍽 무섭다』

順子『그래도 패치안허 내가말하면 아모말못해』

聖玉『그래 그래도 順子가 주는것은 말안허는데』

慶伊『그럼 順子야 퍽말해 줘옹』

玉順『그럼 내것두 말해다우』

順子『그래 내말해주께 그런데 聖玉이오빠두 가면 나는 쓸쓸해서 어떠케』

聖玉『이제 오빤 고등학교 단기려 또올때 멀』

順子『그래도 언제 아직퍽멀엇는데』

聖玉『오빠두 順子가업스면 퍽 쓸쓸할걸 집에서도 늘 심심하면 順子얘기만 노리는데』

慶伊『너의오빠 그럼두 잘그라니』

順子『그럼 저번신문사 전람회에서 일등상을 탓는데』

玉順『그래 나도밧서 사진도낫섯다 그런데 聖玉이오빠 우리학교인테 와 聖玉이는 사립학교에 드러갓니?』

順子『聖玉이두 나하고가티 우리학교갓섯는데 몸이 약해서 못부텃데』

聖玉『그래 그래서 지금학교에 드러갓다』

慶伊『얘 順子야 아까 너의아버지께서 얼는 드러오라고 하섯는데 우리 너머 놋지안헛니』

順子『그래 좃는것다 아마오늘 聖玉이네 밥을 짓는가봐 우리얼른 드러가자』

玉順『우리 노래나 부르면서 들어가자』

一同『그래』

順子『무슨노래할까?』

慶伊『시골아이 할까』

順子『聖玉아 너의학교서 안배웟니』

聖玉『그런노래는 안배웟서ー』

慶伊『○○노래가 재미잇지』

聖玉『그것은 나도알어』

順子『그럼 그노래하자 자ー시ー작』

(동모들이 가티 노래하며 천천히 下手로드러간다 노래는 점점 멀어진다 幕 천천히 다친다)

행낭 아이 全一幕 끗 (一九三六・八・二九・作)

우리차지

"동구나무"

동구나무 사는곳엔
동리가 잇네。
꼬불꼬불 산골길을
돌아 나가면
동구나무
동리보다
먼저뵈어녕。

(공주사립 오장환)

가정연료의 종아

연탄의 조코 나쁜것 아는법

재만히 나는것은품질이나빠

구공탄(構炭)이라하는것은 원척으로 무연탄(無煙炭)의 가루를주장으로하고 이것에 불이 잘붓도록하기위하야 숫가루(粉炭)를조금석거서『피치』나 풀로 다저서 덩어리로 만든 것입니다 조흔는 구녕뚤흐른 것과 갑자모양으로 그냥 뭉친것 두종류가 잇습니다 이것은 아모것이나 마찬가지갓지만 실상은 질을따라서 싸고 쓰는것이 경제가 되는것입니다 품질은 첫재 재(灰)가 만히 남지안는것이 조흔것입니다

대개 삼십퍼ー센트 가량의 재가 나는것이 조흔습니다마는 물건에 따라서는 사십퍼ー센트、오십퍼ー센트의 재가나오는나쁜것도 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신 조흔것이면불과십오퍼ー센트밧게 더안나오는것도 업지안허잇습니다

구공탄을 살때는 먼저시험해보기위하야 한두개를 사서 사용하기전에 무게를 다려보고 그다음 다탄후에 남아잇는 재를 다려보아서 양쪽을 비교해보는것이 조흡니다

재 무게가 쓰기전 무게의 삼분지일 이상이되면 그것은 조치못한것임을 알수잇습니다 이런나쁜구공탄은 절대로 사쓰지말도록 하는것이 조흡니다

이보다 더나쁜것은 석탄재를 흙을섞거서 만든것도잇스므로 여간한 주의를 하지안흐면 속기쉽습니다 그다음에 내음새를 중요하게 역이여야 합니다 원래석탄(石炭)은 무연탄(無煙炭)유연탄(有煙炭)의 화합물(化合物)을 포함하고잇는것입니다 이유황의 화합물이 만코적은데 따라서 그석탄 냄새가 결정되는것인데 고리타분한 내음새가 강한것은 유황의화합물이 만히 들어잇다는 표적입니다 이러한 냄새나빼석탄은 위생상 대단히조치못한것이니 석탄을 쓰지안흐면몰라도 기왕쓸려이면 품질이조흔것을 쓰도록하지안흐면 안됩니다

이것이미국문화? 잔학한흑인사형

미국에서는 인종적 우월감으로 살결하얀 백인들이살결이 새깜한 흑인종을 사형(私刑)하는 일이 종종잇습니다。사진은『오ー엔스보로』에서 행한 최근의 실례인데 흑인의 살인 혐의자 레이니・베ー사를 여러사람 아페서형벌을 주기위하야 너른마당한복판에 교수대를 해세워 노흔것입니다 구경꾼은 자그마치 이만명 와자짓겁하고 복작대는통이 무슨큰명절날 축하회나연것갓습니다 교수대한복판에선것이 흑인『베ー사』

가정의화

각혈은폐병초인가

問 이십세 미혼청년입니다 약이개월전에 하로자오차나 다량의 각혈이잇섯스나 그후는조곰도 각혈이업습니다 진찰하은즉 폐첨가답아라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래라던지 신열도조곰도업습니다 흥다른데이나 안일까요 삼년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부르며 각귀중도잇습니다 병명과치료법을 가라처주시기바랍니다 (府外某生)

答 삼년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이개월전각혈을하얏스며 진찰하니 폐첨가답아라고 하얏다고요 이런것으로 생각하면 그이각혈은아모증세가 업다가 급작진찰이마즌것갓슴니다 원래폐병각혈만하는거시 한특증입니다 그런고로 폐병에대한 치료를하심이 적당할것십니다 각귀중도잇다고요 그러면 각귀에대하야치료도필요합니다「비타민B」를복용하게하시십시오 (惠林醫院長 朴秉來)

五百萬名樣 總當り

◎壹等賞 (貳千名樣)
(イ)新型腕時計 壹個
(ロ)新柄御召銘仙 壹反
(ハ)銘仙座布團 壹組
(ニ)寶石入金指輪 壹個
(ホ)輕便卓上ミシン 壹臺
(ヘ)羽二重掛布團 壹枚
(ト)茶 筒 壹揃
(チ)流行型婦人絹洋傘 壹本
(リ)ボストンバッグ 壹個
(ヌ)羽二重片側帶 壹本
(ル)總桐用箪笥 壹棹
(ヲ)家庭用ハカリ 壹臺
(ワ)總桐文机 壹個
(カ)最新型置時計 壹個
(ヨ)婦人雜誌無料購讀券 (壹ケ年分)
(タ)晴雨兼用絹洋傘 壹本
(レ)極上安全剃刀 壹個
(ソ)豪華お化粧セット 壹組
(ツ)特製鏡台 壹臺
(ネ)オートマッサージ 壹個
◎貳等賞 (參千名樣)
レート化粧料美麗詰合函 壹個
◎參等賞 (拾萬名樣)
携帯用レート粉白粉 壹個
◎愛用賞 (五〇〇萬名樣全部)
美麗世界十美人お化粧カード 壹枚
(御愛用賞は御買上の際、洩れなく進呈)

東京市日本橋區馬喰町一
平尾贊平商店懸賞係

若肌のままもり!
レートクレーム
레ー도구레ー무

愛用感謝! 또破天荒의大壯擧

大懸賞

抽籤으로다시二重
優待의大奉仕!

살결거친것 버거짐을 防止하고四季를通하야 若肌를守護하는〇〇〇クレーム의이름을아십니까?

答案用紙와쓰는法

レートクレーム의 空函을그대로하고 白紙에 左의順序로記入하야 近處의レート化粧料參加販賣店에보내십시오 (누구나얼마든지關係업습니다)
一、〇〇クレーム (〇〇의中에 글자를너허주시오)
二、…希望品一點 (イロハ로…)하시오
三、住所姓名(年齡)
四、レートクレーム를 買上하신店名과住所
五、당신의살결이거칠편입니까脂肪性입니까
六、愛讀의新聞朝鮮日報名과 …하나드려주시오
近處의레ー도化粧料參加販賣店에는 愛用者여러분의便宜를도아答案을모아서 本舖로付送하므로郵稅가必要치안습니다 (…에關한問議는 一割을近處參加販賣店에問議하십시오)

〆切 昭和十一年二月末日
發表 同年三月末日新聞紙上

應募를速히

가을의 카메라

豐饒한가을！가을이되면 豐饒한 土地가잇다。農村의 하늘은 透明할드시 맑게 개인데 어느 들판 이든지 누렁거리는 黃金빛 물결은 무거운 穀穗을 것는것이다。그럼으로 사람들은 이때에만은 分配와 근심도 이저버리고 웃을지 歡喜이라는 能力잇는 感情을 享樂할수잇는것이다。살찌고 알차서 豐饒한가을！우리는 이러한「豐饒의가을」을 가지고십다。

九•十月創作評 ⑥
作品의 魅力과 經驗要素
安懷南

『낫에는 피덩어리가튼 태양이 유일의 벗이고……』 姜鷺鄕氏의『安息』은 이러한 文句로 시작되는데 白晝의 太陽을 피덩어리갓다고 表現한것이 脾胃가 틀리고 입맛이 쓸아슨다。『서울의 태양은 얄미웁게도 내 머리를 후려갈것다』 太陽의

…◇光◇… 線이 머리를 후려갈긴다는것은 어떠케하는 말인지 못아라들을 소리다。予先 作品의 冒頭에서 이러한 厭症이 나고 보면 該作品 全體에 通하야 評釋지못한 先入觀을 갓게되고 마는데 이러한 枝葉的인 問題를 가지고 그가티 食傷을 이르키는것은 내自身의 健全치못한 表徵이며 따라서 批評하는 사람으로서의 輕薄한 行動이 아닌가도 反省하는것이지마는 그것은 할수업는 노릇이다。

果然 못까지 참고 通讀하매 메시꺼운氣分은 가라안고 오히려 九十月創作中佳篇의 하나인것을 首肯하고마는 즐거움을맛보앗다。主人公과 賣笑女와 下宿主婦와 老人 이여러人物들의 모양과 性格과 心理가 微妙하게 交錯되여 나가며 또한 眞實하게 그리여젓다。文章까지가 上示한것 以外에도 多少의 粗雜함을 면치못하는 대목이여럿잇스나 相當히 부드러웟고 『다스러운 새시의체온을 멈처다리에 느끼며 나는 지갑속의 돈푼을 마음속으로 헤여보앗다』 等等은 名文이엇다 모두가 作者自身의 經驗的要素로

…◇構◇… 成된것 가운데 이러한것이 經由하야 眞實한것을 나코 또 그經驗의 多角的인데 比例하야 재미잇는 스토리가 생기게 되엇스며 우에와가튼 리알한描寫까지를 어든것이라 밋는바이다。우리들 作家를 恒常 괴롭게 하는 作品의 줄거리。即 스토리의 屈曲。그것의 波瀾。이야기의 複雜多端한 재미。이러한것도 作者의 엉뚱한 空想과 主觀으로 形成하는것 보다 實際的生活을 通하야 짜진것 個人의生活이나 社會의生活이나를 莫論코 作者 스스로가 부다처보고 觀察한 經驗的要素로써 製作된것이 비로소 作品우에 再現될수잇고 實感을 同伴할수도 잇게되는것이라 생각한다。

韓仁澤氏의『무덤』은 姜鷺鄕氏의『安息』과 全然 對立되는 作品으로 이가튼 意見을 가장잘 證左하고잇는 作品이다。지나치게 貰房을 차즈러다니는 描寫를 길게한것도 숌씨의 未熟한 所致일것이나 作品全體가 幼稚한 新派演劇으로 되어버린것도 그의 속못차리는 空想에서 胚胎된것이다。

…◇肺◇… 病을 靜養키위하야 어느僻村으로 내려가잇는데 그가 每日 散步하는 路中에는 무덤이 잇다。거긔서 날마다 省墓를하러오는 젊은女性과 맛나는대 그무덤은 女子의옵바의것으로 옵바는 文士와 己往 親友엿다。女子는 每日 옵바의 무덤에 省墓만 할뿐아니라 文士와 옵바가 함께 撮影한 녯날의寫眞을 自己의품에품고 다니며 恒常 드려다 보아서 文士와 山路에서 邂逅하엿슬때에 당파 文士를 누구라 알어봣다。이것이 因緣으로 두사람은 戀愛關係에 빠지는대 女子 亦是 肺病으로 나종에는 世上을 떠나며 그의遺書으로 山中에 暗葬한 옵바의 무덤엽헤나란히 무치다。其女子에게는 家族도 아무도 업는것이다。

이러한 러브씬을演劇하기 위하야 女子에게는 父母도 兄弟도 동무도 업는것이며 또한마음대로 두번식 暗葬을하야 雙무덤을 맨들수도 잇는것이겟지마는 이것이 어림도업는 어린

…◇兒◇… 孩의 작난갓다는것은 說明할 나위도 업슬것이며 筆者는 作者의 親友의한사람으로 그에게 다시 血心苦篤하는 精進이 잇기를 빌어 마지안는다。

大衆的 新聞小說에지지안는 센티멘탈하고 아기자기한 스토리이나 그것이 通俗小說과함께 소름만치도 우리를 感動식힐수업는것은 그속에 實際生活을 土臺로한 經驗的要素가 조곰도 업기때문인것이다。身邊小說의 眞實感이니 純粹한魅力이니 本格小說의 스토리의屈曲이니 滋味니 나는 여러번 이런말을하엿는데 이러한 實例를 延長하여보면 意味를 完全히 理解하게되리라 밋는다。

宋影氏의『春夢』은 作者야 어떠한 諷刺를 目的한것이라 辯明할는지 몰으지마는 나의 생각으로는 험한 戲作에 不過한것이다。金南天氏의『에치오피아의 魂』도『크레시엥』의 最後는 壯烈한것일지나 作者의 氣魄은 虛弱하다。尹基鼎氏의『安城』과 姜鷺鄕氏의安息、韓仁澤氏의『무덤』等에는 各各 知識分子가 主人公으로

…◇登◇… 場하야 모다 제대로 作者의要求에 따라 朝夕으로 투하면 悲觀도하고 또 버러간 差度도 보게되고하는데 여러 作家들은 이러한것을 操縱하며 꾸미어가는程度의것이 小說을制作하는技術의 全部인것가티 誤解하는 모양이나 이것은 大端한 錯誤이며 곤람이다。좀더 小說의手法을 深刻하게 工夫할必要가잇다고 늣기어진다。

니ー체와現代文化
—그의誕生日을記念하야— ②
金亨俊

그러고 實際方面에 잇서서는 몃다이 정렬、스펜그렐、세ー렐等이 니ー체의 思想을 繼承하야 生의 哲學을세웟스며 大戰以後에는 하이데엘 야스펠스等이 實存哲學의 立場에서 니ー체의 超人思想을 攝取하고 잇는것이다 그리하야 最近의 不安文學 不安哲學 그리고"不安으로부터 再建에"를 目標로하는 行動主義等이 大體로 니ー체에서 그思想的源泉을 求하고 잇는것이다 뿐만아니라 니ー체는 다시 파시즘 또는 나치스에게까지 影響을 주고 잇스니 伊太利의 파시즘哲學者 진데레ー의 行動主義가 니ー체를 讚美하고 잇스며 獨逸의 나치스哲學者 프릭스 갓제가 "니ー체實現"이란 著書가운대서 "칸트의 任務는 實現되여 버렷다。니ー체의 任務가 發生하고잇다。定立은 認識에 優越하며 實踐은 理論에 優越한다。新時代는 생각되는곳으로부터 시작해도 조타。그러나 新時代는 일직이 니ー체가 發見한 그것에서 斷切點을 求하지 안흐면 안된다"고 하야 니ー체가 나치스의 압날을 豫言한것처럼 讚仰하고 잇다。한거름 더나아가서"니ー체의 超人思想의 意義에는 反프로레타리아的인것으로 잇다"고하야 左翼評論家들로 니ー체를 否定하는 形便이다。

니ー체는 너무 有名해젓다。그의 너무도 廣範圍의 影響力은 우리들을 眩惑케한다。지금 니ー체思想은 조흔方面(行動文學等)에서 發展되고 잇는 反面에 나쁜方面에서 惡用되고도 잇는것이다。그러면 니ー체의 思想은 어찌하야 生前에는 아무에게도 理解되지 못한것이 死後에는 이처럼 各方面에 影響을 주고잇는가?

니ー체가 生前에 冷嘲를 免치못한것은 그가當時의 人間잇 그들의 文化를 너무도 容赦업시 批判하며 否定하엿든까닭이다。

그러면 니ー체는 왜그러한 否定的態度를 가젓든가? 니ー체가 六歲되든 一八四八年은 獨逸歷史에 잇서서 한개의 分水嶺을 짓게하엿다。이해三月에 이러난 所謂三月革命은 아직까지 封建勢力미례서 늣잠을 자고잇든 後進獨逸을 世界資本主義舞臺에 登場시키는 契機이엿다。三月革命은 封建勢力에對한 市民階級의 勝利로서 歸結되엿다。

그러나 當時 모든弱點을 가지고잇든 獨逸의 市民階級은 그뒤 前進하기 작이업는 封建勢力과 妥協치안흘수 업섯든것이니 여긔에서 獨逸은 封建的、資本主義國家란 混合形態로서 나가지안흘수 업게된것이다。그뒤 一八四八年의 칼리포니아、一八五一年의 오스트라리아의 金鑛의 發見은 獨逸의 産業發展에 새로운 活氣를 주엇스며 며욱이 一八七一年 普佛戰爭의 勝利는 佛蘭西로부터 多額의 賠償金을 밧게하야 獨逸을 農業國으로부터 한거름 商工中心의 近代國家로서 飛躍케한것이다。

그러나 獨逸의 이러한 發展은 內容的으로는 말할수업는 腐敗的現狀을 품고 잇섯스니 政權의 使命을 維持하려는 封建層의 亂舞、金利에만 血眼이된 商工부르조아지의 奸巧、生活에 同時에 呻吟하는 下層民衆(니ー체의말로는 賤民)의反抗等의 複雜한 現象은 帝國統一의 基礎우에서 烽火와같이 發展하는 獨逸의 內的危機를 오히려 證左하고 잇섯든것이다。이러한 現實은 文化的으로 極端의 頹廢를 가저오게 하엿든것이니 民衆으로하여금 現實로부터 關心을떠케함으로서 自己네의 現實的維持하려는 封建的僧侶層의『死의說敎』와 商工層의 物質的慾望에 基礎를둔 自然主義唯物論的 世界

漢詩

題 白頭山
押 峯
詞宗 考選

二等 [illegible]
金鶴安

白頭今上白頭峯。
峯上衆峯千萬重。
紫塞三邦如蛭蟻。
靑邱一脈走生龍。
尺碑安敢爭疆域。
五岳當然讓祖宗。
拜告地靈何所願。
願生人傑好時逢。

評曰 起句可謂己探驪珠也

暮學館筆記 (三)
新羅의國號 (下)
蒼匡學人

附 羅京의諸俗稱

新羅는 그京都의 名으로써 國號를 삼엇든것과 新羅의여러가지 異譯이 잇서든것은 上述한바와갓거니와 京都에限하야 쓰든 俗稱으로는 오히려 種種의 異譯이 잇섯든것이니 여긔에부처 敍述하여보자

(一) 本紀에 按하면 朴赫居를 收養하든者가 高墟村長 蘇伐公인데 이蘇伐은 徐伐의 轉으로보겟고

(二) 始祖二十一年에 京城을 築하야 號를 金城이라하엿다는데 金의訓이『쇠』요 城은 古訓에 支、忽、伐等으로 稱하든것인데 여긔는 伐의뜻일것이다 대개 支는『재』의轉音이니 即嶺의稱이오 忽은『골』의轉音이니 即谷의 稱이오 伐은 原野의稱이니 即野의 稱인데 城으로서 嶺에在한者를 支라하고 谷에在한者를 忽이라하고 野에在한者를 伐이라하엿든것 갓다 그러면 金城은 徐伐이나 即徐伐의異譯이오

(三) 高墟村長蘇伐公이란것을 볼때에 高墟村長이 即蘇伐公이아닌가 다시말하면 高墟村이 即蘇伐의 別名이아닌가하는 疑心이나는데 儒理九年 六部의 名稱을改定할때 高墟部를 沙梁部로 改하엿다하니 沙는 徐의截音으로 뵈이거니와 梁은 方言에『돌』인데 이『돌』은『돌』이아니오 平野의 稱인『덜』의 轉語로 借用한것이라고생각되고『덜』은『벌』과가티 쓰는말이니 그러면 沙梁도 徐伐의 異譯이오 (下文第五項參照)

(四) 黃草嶺 巡狩碑에 쓰인 喙部 沙喙部는 누구든지 本記에 보힌 梁部、沙梁部로보것는데 喙의 訓이 부리로『부리』의 俗音이『불』이오『불』의 異譯이『벌』이니 沙喙도 徐伐의 異譯이오

(五) 三國遺事辰韓條에 실린 崔致遠의 說에 辰韓은 燕人의 避來한者인故로 涿水의 名을 取하야 所居邑里를 沙涿이니 漸涿이니 일것는다하엿스나 그것이 果然無稽이든가는 別로히 考究할 問題어니와 同書註에 羅人方言에 涿을道로 읽고 즉금은 沙梁이라하되(沙涿을沙梁이라한다는意味) 梁도 道로 읽는다하엿는데 黃草嶺碑에 沙喙가잇는故로 涿은 喙의誤인가 疑心하는사람도잇는 모양이나 涿은 梁과가티 道로읽는다하면 道는『돌』의轉音이오『돌』은『덜』의轉音이오『덜』은『벌』의異稱이니 沙涿도 徐伐의 異譯이오

(六) [illegible]에 新羅의說을 記載하야 가로되 慶州는 古代에 徐菀이라고도 하다가 新羅가 統一한 以後로 京都의 號이되엿다 하엿는데 飛脚天歌에는 京의訓을서『블』로씌스니 菀으로『블』의音譯인것을알것고『블』은『불』『벌』의 間音으로 解釋할수잇는데『불』은본대『벌』의轉音인즉 徐도 徐伐의異譯이오

(七) 新羅樂志에 按하면 思內架、思內舞가잇는데 思內의 注에 詩惱라고도 한다하엿고 于勒의 伽倻琴十二曲이 모다 地名으로된것을 미루워보면 思內도 地名인듯한데다가 三國遺事에보힌 羅京三十六座金入宅의稱呼는 모다 坊里의 名으로된것이 나타나는데 其中에 思內曲宅이 잇스니 思內、詩惱가 다徐那의 異譯이라하겟고

(八) 上文에 이미말한바 三國遺事에보힌 [illegible] 即徐那伐의 異譯인것은 다시말할 것업다

그러면 蘇伐、金城、沙梁、沙喙、沙涿、徐菀、思內、詩惱、詞腦等 凡九種은 國號까지에 쓰지는안코 京都의 稱으로서 쓰든것이니 여긔다가 國號로 쓰든 辰韓、徐那伐、徐耶伐、徐羅伐、斯盧、斯羅、新羅、徐伐等을合하면 實로 十七種의 異譯으로된것인데 이밧게도 本紀에 보힌 始祖王부터 南解、儒理、婆娑四王의 葬地인 蛇陵이 徐那의 轉인듯하고 職官志에보힌 舒發翰、舒弗邯의 舒發、舒弗이 다徐伐의 轉인듯하며 王의 葬地蛇川丘의 蛇川이도 한 徐那의 異譯인듯하나 이것은 좀더 考證을 待할問題오 梁書에 按하면 新羅는 흑 斯羅라고 稱하엿다하나 이에 新盧라고 稱하엿다하나 이것은 新羅의 異譯인듯하야 오히려 數外에 둘수밧게업다

『雨後風景』 培材高普 孔利奎作 (學生美展特選)

××××××××
中國에잇서서
數學의發達 ⑤
金一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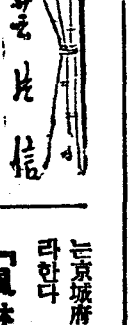
圓周率算定의 問題와 그方法의 根本은 거이印度로부터 傳來한것이겟스나 中國의 數學者가 이方面에 貢獻함이 업섯다고는 볼수업다。劉徽 及그前後에는 假令 모다 印度의 도움을 바덧다하드라도(當時印度의 數學이 果然이나程度까지 進步하엿다는것은 疑問이나)中國의 數學者가 一步나아가 攻究를 거듭하엿다는것은 否定할수업는 事實이다。劉徽가 死去한後 二百年 劉宋의代(五世紀)에 祖沖之가 出生하엿다。祖氏(四二八年—四九九)는 前代學者가 算定한 圓周率에 滿足지못하고 스사로 獨特한 方法을 創造하야 圓周率의上下限界를 三、一四一五九二七과 三、一四一五九을 確定하엿스나 甚히 精密한計算이라하겟다。이것뿐아니라 이兩種의限界로부터 推定하야 一一三分之三五五及七分之二二란 두分數值를 究得하엿다 이後者는 希臘의『아르키메데스』(紀元前二八七？—二一二)가 數百年前 이미 發見한것이나 그前者에關하야는 希臘은 勿論 印度、亞剌伯等에서도 이數值를 發見하엿든것을 듯지못하엿다。

近代에이르러 一五八五年『아드리안•메추ー스』의 父『아드리안•안토니스』가 처음으로 이數值를 發見하엿다。

그럼으로 祖氏는 歐人보다 千餘年을압서 이數值를 發見한 세음이다。祖氏의 이發見은 唐의魏徵(六四三年死)가 著作한隋書律曆志에 記載되여 傳하여젓스나 祖氏가 이發見을 記錄한 著書『綴術』은 遺憾이나마 傳하여지지안헛다。其書名인 綴術이란 語는 後代에이르러 漢의學者가이것을 圓周率算定의 方法에 使用하엿다。그러나 이綴術이란말은 曆術上의 術語인듯함으로 祖氏 또한 曆法의 大家로서 製曆에 從事하엿든 사람이라 生覺하건대 이書籍이 曆書로써 祖氏 求圓周法의 解說은 其書의 一節이 아니엿든가 生覺된다 傳說에 依하면 其書의 術理深遠함으로써 學官 能히 이에 通達하지못하고 드듸여 廢止하기에 이르럿다한다 後世學者 或은말하되 祖氏가 一種의 級數展開法을 創意하야 圓周率 問題에 應用하엿다 推說하고잇다。이說은 어느點으로는 首肯되는바잇다 祖氏가 創造力이 卓越하엿슴은 人力이나 風力을빌지아니하고 自動하는 器械를造作하고 또한 사람이 櫓를젓지아니하고 돗대도달지 아니하고 一日에 能히 百里를走하는배를 만드럿다는 記事가 南史齊書等에 記載되여잇는것만 보드라도 能히 짐작할수잇는일이다。祖沖之야말로 果然不出世의 天才이라하겟다。그事業은 當時時流를 멀리超越하엿슴으로 後繼者를 엇지못하고 드듸여 後世에 傳하야지지못하엿슴은 實로 痛歎할일이라하겟다。祖沖之의 아들의 [illegible] 率이라 稱하엿스나 그密率이 도로혀 祖氏의 密率로써 널리學海에 알리워지고 密率은 使用하는사람이 업게되엿다。密率의記事가 殘存한것은 不幸中多幸이라하겟다。圓周率算定에는 祖沖之以後 元의趙友欽等이잇다。其後 天主敎의 傳來에이르러 湯若望(아담•샤ー르)이、또한 이算定을 支那에서 試行하엿다。淸朝에드러 또한 이러한 硏究에 從事한 學者를내엿다。이러한 歷史가잇는中 宋의 秦九韶와가튼 數學의 大家로써 何等檢討함이업시 圓周率을 十의平方根이라 認定한 事實도 업선든것이아니다。

唐初王孝通과 同時에 李淳風等의 曆家가나와 曆術이 進步함과더부러 勅命으로써 諸算術의書籍의 註解를 編修하엿슴으로 算法도 一大進步하게되엿든것은 勿論이다。一方開元의 治世에는 當時의 政治顧問이엿든 瞿曇一行(六八三ー七二七)이잇서 그著述한『大衍曆』은 所謂大衍術即一種의 不定解析法을 使用하야 算定한것으로 曆界의 一大進步라 하지안흘수업다。以來 唐宋數百年間 數學도 漸次進步되든痕跡이잇스나 이時代의 消息은分明히 알수가업다。宋末元初에이르러서 王孝通의 三次方程式에 使用되든近似解法이 一般高次方程式에 擴張되고 代數式算法도비로소創造되게되엿다。

宋의 秦九韶는 淳祐七年(一二四七)에『數書九章』이란 書를 著述하엿다。書中記載한 數學方程式解法은『호ー나ー』의 解法과 大差업는 것으로 英國에서『호ー나ー』가 一八一九年 그論文을 公表하기前 大約六百年이다



朝鮮文學社移轉

市內苑西町에 잇든 朝鮮文學社는 市內 敦岩町四五八의 四號로 移轉하엿다한다

詩季刊誌『浪漫』刊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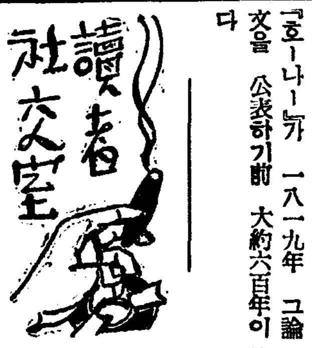
젊은詩人들이 中心된 詩季刊誌『浪漫』의 刊行은 그동안 編輯責任者 尹崑崗、閔泰奎氏等이 準備에奔忙中이더니 요지음校正이 끗낫스므로 今月下旬頃에는 나오리라는데 住所는 京城府敦岩町 三九九의八號라한다

『風林』創刊

純文藝月刊雜誌『風林』을 洪九氏의 編輯으로 創刊號準備가進行되고 잇다는데 住所는 京城府樓下町七十三番地라 한다

『朝鮮詩壇』創刊

崔春湖 朴貴松氏等이 中心되여 詩月刊誌『朝鮮詩壇』을發刊한다는데 創刊號는 十一月初旬에 나오리라하며 住所는 京城府西界町三四의一八에두엇다한다



▲詩와小說에 기픈동무를 구합니다。讀者靑年諸兄과 누님들께 한말씀 올립니다。여러분가운데 詩와小說을성것쓰스나 어느마한程度에 것인지를 아지못해 안탁까워하시는분이 게시오면 未安千萬이오나 左記生의住所로 通知하여주옵소서 저도이러한 가운데한사람이라 互相同情하는마음을가지고 詩와小說을 交換하여보며 느낀바 意見도주고밧는가운데 잘잣못도 서로指摘하여가며 將來우리朝鮮文學을世界에 으뜸되게하여보자는 生覺下에 드리는말슴이오니 意見이有하옵신이는 必히通知하여주소서。平南順川郡殷山面丁山里 三九八 朴鎭海

▲저는 今年十六歲되는男子이온대 수염이안히납니다 짜지안코못나게할方法은 업습니가 讀者여러분下敎해주십시요 市內KA

▲林昌煥君！웨消息이업슬가？至今은무엇을하는지 옛날奉天에서 文浪하든時代가 그립구나。여러親友들이여！林君의住所를 아르시면通知하여주시면感謝하겟습니다 龍川楊市 林正根

▲阿峴서 東洋醫院을 經營하시든 羅盛源氏의 現在住所를아시는분은 이社交室로 좀아르켜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只今도어데서 病院을經營하시는지요近況을 仔細히말슴해주서요 慶州 郭生

▲九月九日讀者社交室『文坪』寂生께 答합니다 小生이新潮社世界文學全集中レミゼラブル全三冊과寂シノキ人人外二冊을가지고잇는데 讓渡하려합니다 생각이잇스면 左記로問議하여주시요 咸興府軍營通一ノ二 徐英淑

▲民村氏作品 長篇小說로『故鄕』을 어느때 무슨新聞에揭載하엿든것과 지금의 그發行所即出版한 書店이 어디인것을 알고저 願하오니 아시는分은 本報讀者社交室로通하야 下示하여주시오면 感謝하겟습니다 市內一讀者

▲李福兒 生도亦是兄과同志者며 普文이라目標아래 헤메는者올시다 거번물어주신것에對하야 生의知悉까지나 記해보겟습니다
一、受驗場所 京城中學校
一、科目 普通科 修身 國語 算術 作文 地歷
法律科 民法 刑法 行政法…必須 民事 刑事訴訟法…擇一
一、資格 制限이업다합니다
一、最適한講義錄은大日本法制大學會의『普通文官講義錄』
一、其他詳細하게알라시거든 大日本國民中學會發行인『普文案內並受驗問題集』

▲朝鮮日報全讀者諸賢中 普文에成功하신분 或은立志하신분이게시거든 社交室을通하야 指導하여주시오 咸平•海保 李喆臨生

▲讀者여러분께 本人不肖女息이無端出家하야 踪跡을未知오니 아시는분게시면社交欄으로 알녀주시면血屬逢面之恩으로 萬世不忘矣리다
婿之大姑冊宅이 抱川松隅徐氏宅云云 又云婿之伯氏가 數年前水原公普校訓導로勤務中生之女息在水原時自李訓導中婚姻去云云
龍仁郡蒲谷面金魚里二六二 金石煥上

▲本人의親友로 大學豫科在學中이온대 至今某形便으로 中等學校程度家庭敎師를 希望하오니 有意하신분은 左記住所로通知하시면紹介하여주겟습니다 報酬는 一切相對者의意見에 應하겟다하옵니다 府內明倫町四丁目二〇六의四一 金弘濟

新刊紹介

▲朝鮮叢書 十月號 發行所 京城府光化門通 朝鮮叢書協會 振替京城四八〇一番 定價五十錢
▲交通內外 十月特輯號 鐵道讀本 發行所 東京下谷區二ノ三 日本鐵道タイムス社 振替京城一八六三七番 定價十錢
▲朝鮮實業俱樂部 十月號 發行所 京城府 太平通一丁目二五 朝鮮實業俱樂部社 振替京城八五四〇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農民生活 十月號 發行所 平壤府新陽里三九 農民生活社 振替京城四八五二番 定價十錢
▲京城府立圖書館報 第六號 發行所 京城府長谷川町一一五 京城府立圖書館 定價一部五錢
▲ピタカ 十月號 發行所 東京市本鄕區本鄕三丁目 大藏出版株式會社 振替東京五一六八四番 定價二十錢
▲朝鮮興信報 第七十八號 發行所 京城府旭町二丁目五一 朝鮮興信所 定價一年六圓

앞은곳에 발느면 곳낫는

神經痛 류ー마지스…

진찬이흘으도록 몹연고통을주는 신경통•류ー마지스(풍증)의 발작시에는 사로메지ー루를 조금 발느시고 살살 문질느시면 암마의 物理작용과强力한 藥物의滲透作用으로 병근원에作用하야 향기러운약냄새와 함께상쾌한기분이들며 그럿케심하든 고통이 곳 개임니다 더구나 약을발는후 적거리지안코 남보매에 흉치안습니다

두통 현기중 치통에…

요새에는 두통 현기중 변두머리 치통을 알키쉬우니 이런때에 흔이약을먹어서 곳 치시라고 하시나 이것은 위장에 속병을 남겨주거나 인이 백이기쉬우니 사로메지ー루는 그런범이 업고 곳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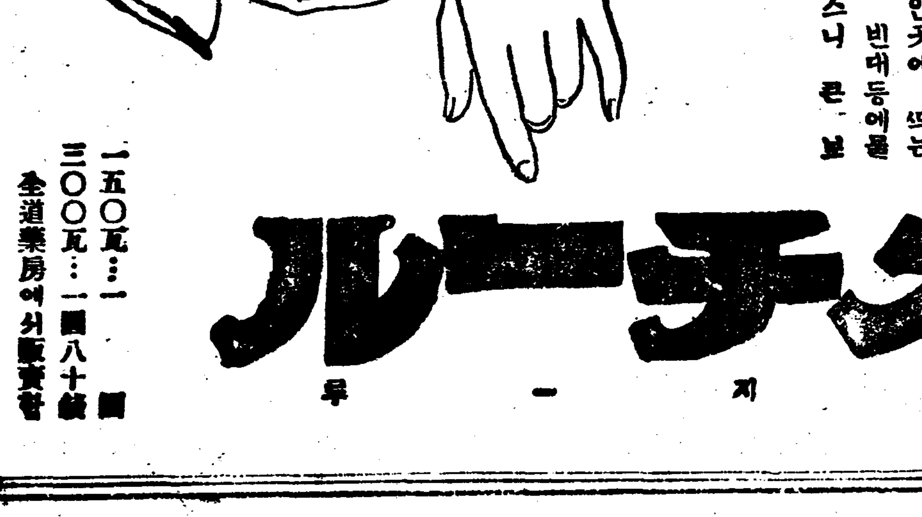
담절니는곳…

다드미질 바누질 빨내를 안저서하시다가 일어나실때 생기고 쑤시며 절니는 근육류ー마지스에는 本劑를 조곰 발느시면 곳 나어 편하시게됩니다

家庭應急常備藥…

으로 어느가정에도 한개식 상비하여두시기바라오니 갑작이발병하야 압흠을 참지못하는때 응급치료가되며 평지낙상 혹은쎄인곳에 또는 감기에 걸녀 목이 압흘때 벼룩 빈대등에물닌데나 그예방에 우수한효과가잇스니 큰보호신이 되는약임니다

신경통 류ー마지스 두통 치통 견비증 타복상에



サロメチール
사로메지ー루

一五〇瓦…一圓
三〇〇瓦…一圓八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함

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本町 株式會社 田邊元三郎商店

連載野談 (一四) (不許轉載上演)

薯童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畫

마롤캐든총각 (二六)

선화공주가 서동의 잘낫다는 말을 드른뒤 과연 마음이 간질 간질한듯. 서동이가 얼마나 잘낫는지 궁금한 생각이 은근히 생기며 속으로

『아아. 서동이 그러케 잘낫다니 어떠케 잘낫기에 그잘난 인물을 귀가 막혀서 말을할수가 업다구하는거 젊은중 만큼만 생겻서도 잘난 남자라하겟거늘 그보담도 더 잘낫다면 서동은 우리인간의사람이구는 못하겟지。』

하며 선화공주는 다시 그젊은중의 풍신을 살피엿다。

이때 그젊은중은 선화공주의 과색이 아마도 속으로 서동의 잘난것을 그려보는 눈치를 채이고 그간지럽게한 마음에서 우숨이 터저나오도록 한번더 간질려 주려고, 시침이를 뚝떼이며

『공주아기씨!。서동은 이왕천상의 선관이엇지만은 참으로 잘낫서요。그 충신은 과연옥끌선풍이어니 다시 그잘난것을 형용해 말슴할수 업지요만。그밧게 맙잘고 재조만코。꾀만코。힘세고。용맹스러운고。그사그뿐인가요 지극히 인정만코。지극히 어질지요。그럼으로 그풍신으로는 남중절색。그어진품으로는 성현군자。그용맹으로는 천하명장。그재조와 꾀로는 짝업는모사(謀士)。그리고 나히는 공주아가씨와 동갑인 십륙세。이런사람은 우리인간이 생긴뒤 처음일것。』

하며 그젊은중은 서동의 잘난것을 어찌나 흥벅스러웁게 징찬을하얏든지 선화공주는 과연 취한듯 심신이 몽롱하얏다가어언지 마음이 간질간질하야지며 실홍없시 우심이 나왓다。

그리고 선화공주는 엇저절에 그 젊은 중을 바라보며

『그래 서동은 지금 어듸잇단 말이야?』

하고서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하야지며 서동의 잇는곳을 물은것을 부끄러운듯이 아미를숙으렷다。

『서동은 멀니잇다면 멀니잇고 가갑게잇다면 가갑게잇는 서동。그럼으로 서동을 속히만나 보지고 뎌듸만나 보지는 것은 오직 공주아기씨께서 옥황상제께 발원하시기에 달니신일。』

하며 선화공주의 긔색을 살피엿다。

『발원이라니 어떠케 발원을하누?』

하고 선화공주는 곳 발원이라도할듯이 물엇다。

『발원을하시려면 소승이 그차는 아르켜 드릴까하오。』

하고 그젊은중은 선화공주를 위하야 수고를 액기지아니하려는뜻을 말하엿다。

『아아。그러케 신세를 질수가 잇나?』

하며 선화공주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서동을 한번 맛나보기를 원하엿다。

이에 선화공주는 작우간 서동을 한번 만나보기는 보아야할생각을 거듭 색임질 하면서 다시 수레에올 나길을 떠낫다。

그렁 저렁 압흘 향하야 거를새 어느듯 서산에 해빗이너울거리고 몸이 곤함으로 정한주막을 끌려 쉬기로하얏다。

때는 깁흔밤!。

선화공주는 길에 삐처온 곤한 생각도 모르는듯。그뜻아닌통요로 귀양길을 떠나게된것。또는 얼는죽어서 원귀가 뒤려든생각。끄트로는 서동을 긔어코 만나보려는생각。이것이 한데뭉치매 잠을 일우지못하는괴롭에 잡히어잇섯다。

이때 문밧게서 발자옥 소리가 가벼히 들니드니 기침한번으로 인괴척을 하면서

『공주아기씨!。매우곤히 주무십닛까?。서동을 맛나실때가 각가워왓사오니 이것을 바터노시고 발원합소사。』

하는 그청아한 목소리는 못지안어도 그젊은중의 음성이엿다。

선화공주는 깜작놀라 두근거리는 가슴을 한참 진정한뒤

『그것이 무엇?。어째든 이밤 중에?。』

하며 선화공주는 얼는 문울열지아니하엿다。

『공주아기씨!。하늘이 지시하시는때를 올니치 맙소사。』

하고 그젊은중은 아예 닥처온 복되때를 저바리면 그대신으로 앙화가 올것을 말하엿다。

선화공주는 얼마 주저하다가 메미시를 꼿처하고 걸엇든 문을여니

『이것 바테 노십시요。』

하고 그 젊은중은 정화수 한그릇을 소반에 바처여 들여밀엇다。

선화공주는 그소반을 공거바더 방에 드려노찻。그젊은중은 서슴지아니하고

『나무아미 타불!。관세음보살!。』

하며 방안으로 섯듯 드러섯다。

曆

十月十七日 (土) 舊戊戌九月大(初三日) 壬申·金·氐·開

祭祀에宜함

●霜降二十三日(初九日)

●立冬七日(舊二十四日)

라디오

十六日 (金曜)

◇午後六時 라디오風景 一景
配役 慶姬……李玉姬
仁淑……禹貞淑……吾順
羅今子……吾順어머니……禹英萬
英子어머니……劉槿香
其外水防團員
京城放送兒童劇研究會
指揮 南雲 伴奏 劉永愛 效果 金倩燁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秋夜와讀書 培花女高 金允經

◇同七時三〇分 譯講『鐵道의使命』 鐵道大臣 前田米藏 通譯官 西村眞太郞

◇同八時 라디오드라마『水仙花』一場
一配役一
李南哲……(騎兵參尉)……吉七永
醫師……李元瑞
看護婦……白庚姬
貞順母……全納英
金廣植……(貞順의父)……龍波
貞順……(女學生)……李錦子
南哲兄……金熙昇
杏花……(妓生)……卜惠淑
李承吉……(南哲의父)……金惠園
放送劇新人會
指揮 金海雲 效果 李完鎭

◇同八時三〇分 遊山歌外 一、유산가 二、제비가 三、달거리 四、선유가 金明淑 李蘭紅

◇同九時 歌詞 一、길군악 金美花 二、黃鷄詞 崔竹香 大琴 金永根 杖鼓 金一申

第一放送

◇同六時 (大) 浪曲漫劇

◇同七時三〇分 (東) 俚謠巡禮

◇同七時四二分 (東) 尺八 納富壽童

◇同七時五五分 (東) 長唄

◇同八時一五分 (東) 浪曲講談 大島伯鶴

◇同八時四〇分 (東) 歌謠曲 市丸 三味線 才香

◇同九時 時事解說

十七日 (土曜)

◇午後六時 童謠 齊唱과獨唱 一、齊唱 은방울 二、同 잘가시요 三、獨唱 슬픈밤 四、齊唱 가을 五、同 병아리 六、獨唱 나무닙배 七、齊唱 선반의사과 八、同 오뚝이 忠信學院 金龍燮

◇同六時三五分 週間時事 李元坤

◇同七時三〇分 雅樂―李王職 一、管樂 柳初新之曲 二、細樂 艶陽春 三、合樂 其壽永昌之曲 李王職雅樂部員 指揮樂師長 咸和鎭

◇同八時五分 (東)獨唱과管絃樂 一、管絃樂 올림피村 린데作曲 二、獨唱 한낫의꿈 高安月郊作詞 梁田貞作曲【外九曲】 獨唱 三浦環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藤原正雄

◇同八時三五分 野談『殊常한거지떼』 申鼎言

◇同九時五分 伽倻琴併唱 一、短歌 二、唱劇調 李素香 鼓手 韓成俊

第一放送

◇午後六時 (靜)노래공부 平井美奈子

◇同六時二五分 (東)講演 岩橋小彌太

◇同七時三〇分 (仙)俚謠巡禮

◇同七時四二分 (東)講談 大島伯鶴

◇同八時五分 (東)獨唱과管絃樂 三浦環

◇同九時三五分 (大)舞台劇『人斬伊太郞』 長谷川伸作

十八日 (日曜)

◇午後六時 童話『白頭山 호랑이』 金虎俊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演 金益斗

◇同七時三〇分 孔明歌外 一、孔明歌 二、寧邊歌 三、긴난봉가 四、자진난봉가 五、개성난봉가 六、방아타령 李寅鳳 金玉葉

◇午後八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三顧草廬 楚漢歌 曹弄玉 鼓手 池龍九

◇同八時三〇分 歌曲 一、羽調 頭擧 二、半葉 三、界面頭擧 四、弄 五、編 金蕉紅 金眞珠

◇同九時 놀냥外 一、놀냥 二、압산타령 三、뒷산타령 蘇完俊 韓仁學 柳開東

◇同一〇時 朝滿交換放送 (滿洲로부터)

第一放送

◇午前七時四一分 農村講座 春木七郞

◇午後六時 (東) 이야기 大宮大洋

◇同七時三〇分 (靜) 俚謠巡禮

◇同七時四〇分 (東、大) 東西[illegible] 作 우롱의저녁 秋山右樂 秋

◇同一〇時 山左樂外

◇同一〇時 朝滿交換放送 (滿洲에서)

◇同一〇時四〇分 (東) [illegible] 安[illegible]

映畵界消息

送還되는세시리아

콜럼비아映畵社의 今年度製作으로 期待되던 名畵 "세시리아"는 아는바와가티 스탄버-크의 監督이요 그레스무어의 主演으로 音樂映畵의 最高位를 가젓다는 評判과 名聲의 東洋新聞으로 人氣를 끌고 잇섯는데 이것이 東京에서는 二十三日 日比谷映畵劇場에서 封切豫定이엿스나 今番內務省檢閱의 不適當으로 却下되고말엇다 同社에서는 一部削除를하야 入檢시켯스나 드듸어不適當되엿스므로 하는수업시 同映畵는 本國으로 還送하기로되엿다

米國映畵가 檢閱不適當으로 還送되엿다는것은 今番이 처음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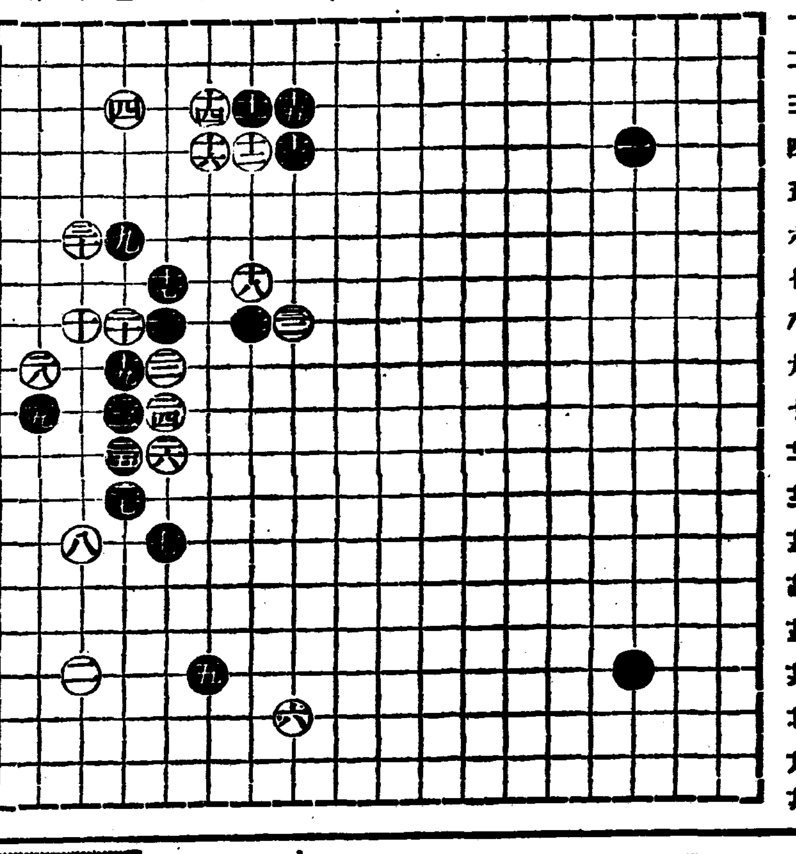
西藏最初의映畵館

西藏의 拉薩이라하면 神祕한 나라의 都市로서 함부로 外國人의 入國을 許하지안흐며 映畵가튼것은 勿論 入國禁止가되여잇섯다 그러나 今番 유나데트·아-티스트社의 印度支社가 이것의 解禁을 運動中이더니 그것이 成功되여서 生佛「다라이다마」의 許可가 내렷스므로 拉薩市에는 西藏의 有史以來 처음의 映畵館이 생겻다 그러나 히마라야山中에 끼여잇는 이 나라에 映寫機하나를 運搬하기에도 여간 한일이 아니여서 몃칠前에 携帶用 映寫機를 驢馬에 실리고 「본베이」에서 拉薩로 보내엿다 그런데 西藏最初로 映寫될 歷史的인 필모는 「떠그라스·페아방스」의 「世界一周八十日間」 海峽植民地의 짱글實寫映畵「사마랑」의 두개로서 오래人동안 世界와交涉이 막혀엿든 이神秘의나라도 映畵를通하야 漸漸 近代化되여 서잇다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2―

白 鄭達源
黑先 李浩性

● 十七	○ 十八	● 十九	○ 二十	● 二一	○ 二二	● 二三	○ 二四	● 二五	○ 二六	● 二七	○ 二八	● 二九	○ 三〇	● 三一	○ 三二
辰의七	寅의七	巳의九	巳의八	辰의八	辰의九	巳의十	辰의十	巳의十一	辰의十一	巳의十二	未의九	未의十	午의六	寅의八	丑의八



蔡極文氏評曰 白이 辰의 九로 斷하야 急迫한 爭鬪은 勝敗로보면 理想치못하나 勢이복 不可免이다 白午의六 黑寅의八 列着이 俱有趣味하니 對應如何를 한번 볼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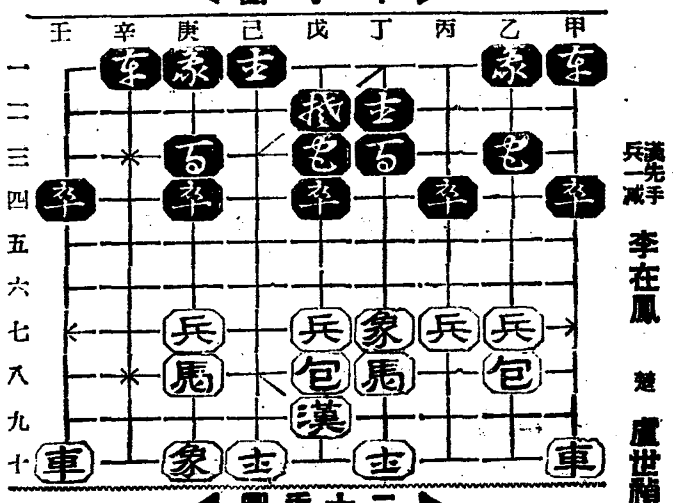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二)

漢先手 兵一減 李在鳳
楚 盧世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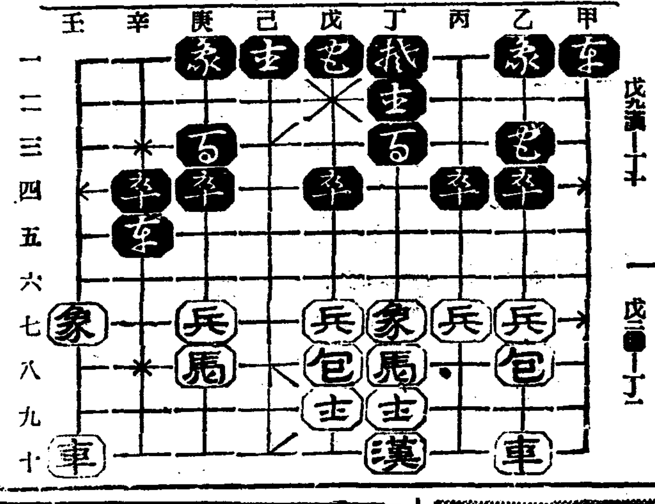
庚十象―壬七 辛一車―辛五 丁十士―丁九 戊二包―戊一

壬七兵―辛七 己十士―戊九 甲四卒―乙四 戊三卒―丁三

◀十手圖▶



◀十二手圖▶



絢爛한天分의爭霸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期日 決選=十月二十四日 豫選=十月廿一日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蓮花(女)「수-만」 一、님은 나의安息(男)「슈벨트」

【피아노】 一、「쏘나타」(F長調)=第一樂章=「모짤트」

【바이올린】 一、「콘첼토」(G長調)=第一樂章=「비오티」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좋은賞金을 授與함
一等 百圓 二等 五十圓
社長賞入一人(二等賞者中)百圓

審査委員 金永煥, 洪蘭坡, 朴慶浩, 桂貞植, 蔡東鮮, 金元福, 鄭勳謨, 朴泰俊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藥用 アーモンドパパヤ クレーム
新發賣藥用アーモンドパパヤ洗粉
가을은化粧料의 眞價를가장 잘알때입니다!
여드름 부스름 죽은깨
기미볏꺼름等은
永年効果로評判이노픈專賣特許의 파파인酵素應用力을 푹試用하십시오 姉妹品으로 新發賣의 洗粉은 淸淨整肌作用이 顯著하고도 시 美肌는 구래-무의獨壇場
經過 여드름과부스름을 構成하는脂肪은 잘녹아서 排泄되여 內攻또는穴跡을남기지안코또 再發을防力强大 죽은깨기미볏꺼름의色素細胞는淨出하야 가되여不知中에 업서버립니다
見本進呈 二錢切手를넣어서 申込하십시오 白粉下에도絶好
◎クレーム 一號 一·二〇 强度 一·八〇 ◎洗粉 〇·三五
東京市神田區松住町十二 株式會社 杉田商店

明治チヨコレート
"明治百點賞"!
明治쵸코레-트의레-벨 속에記載點數百點을모아 서近處明治製菓賣子를販賣하는菓子屋에가저가면곳引換하야五錢짜 리明治쵸코레-트를드립니다

東京·京橋 明治製菓株式會社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金·銀·白金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
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宿醉 로머리가무겁고 惡醉로괴롭게하는때에는
ノーシン 노-신
오래愛用하라 ◇頭痛과 가벼운 消散되여 爽快하게되다 ◇會에는꼭必要

濕布에 エキホス 에기호스
EXIHOS
關節炎·肋膜炎·腹膜炎(腫脹)等에는 에기호스의使用에依하야 效果一層顯著하다
注意 新藥類似品이多數하오니 반듯이「에기호쓰」라고 指名하라
定價 一〇〇瓦 三〇瓦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塩野義商店
製造元 二巴合名會社 大阪

二千町步國有林貸付 二五〇戶를移住
一戶當五町步의耕地를貸與
甲山郡雲興面의計畫

【惠山】함남 갑산군 운흥면(甲山郡雲興面)에서는 면내에 경지 부족으로 허매이고 잇스며 또 현상개변 관계로 옥토에 여지 업는 참상에빠지고 잇는 화전민(火田民)들을 정착시키는한편 영원한 생활안정을 도모하야 금변오월중에 동면 보안소리(甫安所里)에잇는 국유림(國有林)의대부(貸付)원을 당국에 제출한바 잇섯는바 이번에 그허가가 내리게되엿다 보안소리(甫安所里)의 국유림야는 그면적이 이천백시구정보와 광대한것으로 맹맹 리권가들이 놀 생활을 삼키고 잇는것으로서 그림양중 이번 운흥면(雲興面)에서는 경지(耕地)일전이백오십정보 림야오백정보고 다 전록지(適地)를 전부 개방하야 면내에서도 가장 비참한 화전민 이백오십호를 이주(移住)시켜 일호당 오정보가량식의 경지를 주어 개간(開墾)경작케할터이라는데 그대부분은 일개년간 일호에 대하야 오원식이라고한다。 이리하야 이민할 이백오십호의 화전민선택을 시작하야 명춘부터는 이주를 개시할터이라는데 경지가업서 헤매이고잇는 화전민들은 완전히 구하게될것이라고 그귀대가 매우크다한다

지 고등보통학교사변생 정정수(丁正洙)군을 금번조선신궁 경기대회에 사백미돌의 경북대표선수로 보내게되어 전교생만세성리에 원긔왕성이 출발하얏다한다

十個年間計畫으로 二百餘校를增設
明年度에만二十餘校를新設
黃海道初等校擴充案

【海州】황해도에는 금변으로써 일면일교가완성되는데 도학무당국에서는 총독부방침에의하야 명년도부터 십개년간계획으로 현재의초등학교수 이백십오교 팔백학실이하급의 배가증설계획을 수립코저 방금조사연구중이라한다

이전에업는 초등교확충안이 실현되게되면 첫해인명변도에는 이십여교 팔신학교가 증설될것으로 학변아동의 미취학아동의 입학난이 훨신완화되리라한다

簡易學校設立
巨金을率先喜捨

【牙山】배우고저하야도 배울곳이업서 거리로 방황하는것을안타갑게역이여 아산군신창면신달리(牙山郡新昌面新達里) 사는김동구(金東九)씨가 일천삼백원을 솔선하야 내노코 일반유지의협력을 요망하게되야 동면면장강장희(姜璋熙)씨와 기타 지방유지들이 협력하야 간이학교를설립하고 이여 신교사를 신축하야 지난삼일에 지방관미유지 백여명을 초대하야 성대한 락성식을 거행하얏다한다

地主懇談會開催
作料標準討議

【南原】금본남원군에서는 지주 [illegible] 요정은 다음과갓다

一、收穫皆無는 三分作以下는 [illegible] 三分以上이 [illegible] 作料 [illegible]

二、三分作以上 [illegible] 에對하야는 [illegible] 하고 其 [illegible] 入 [illegible] 主의分으로하고 그二割은 作人分으로할事

三、實收穫에 잇서서는 地主가四割五分小作人이五割五分의比例로할事

四、小作料斗斤量은 百七十斤으로 [illegible]

五、小作料以外에는 [illegible] 不請하고 [illegible]

六、[illegible] 에 [illegible] 作人을 [illegible] 하고 [illegible] 明瞭히 揭示할事

自給肥料增産案
今年度부터十個年繼續으로
慶南道의第二次計畫

【釜山】경상남도에서는 소화십일년도부터 동이십변까지 십개년간에 제이기 자급비료개량증산계획을 수립하엿는데 제일긔에 수행한 퇴비(堆肥)급 재배록비(栽培綠肥)외에 천연록비(天然綠肥) 하비(下肥) 회비(灰肥)등을 추가하야서 대대적으로질시하엿고 이번에도 각군에 룡철을하야 계획수행후에는 반당시비량(施肥量)을 퇴비이백오십관 재배록비 륙십관 천연록비십이관 하비륙십관 회비십삼관식을 사용하도록 한다하며그 계획내용은 다음과갓다

紫雲英 十個年擴張面積 四千四百五十三町八百町步 作付總面積 一萬五千町步

靑刈 大豆 十個年擴張面積八千二百八十町步 作付面積 一萬五千町步

天然綠肥 昭和十一年度까지一千百五十六萬二千七百貫增産하야서 三千三百十一萬九千三百十二貫에 達하도록함

下肥灰肥 十個年間 人糞尿一千三百六十七萬八千七百六十五貫을增産하야 一億六千七百八萬四千六百五貫에 達하도록하고 灰肥는 八百二十萬七千二百五十九貫을增産하야 三千七百廿七萬一千百卅九貫에達케함

幼稚園設立基金으로 私財一萬圓喜捨
殷栗洪世雷氏壯擧

【殷栗】황해도은률군 은률읍에서는 벌서몃해전부터 유치원(幼稚園)을 세우려고 열열한노력을하엿스나 긔금관계로 숙망을 달성치못하엿든바 금번 은률읍내 홍세뢰(洪世雷)씨가 선친의 유지를바더 만원의사재를 희사하야 보기에도훌륭한 이층양옥으로 천주교구내(天主敎區內)에 유치원(幼稚園)을 건설하엿는데 락성식(落成式)과개원식(開園式)을 겸하야 오는십일월상순에 일시에 봉헌하려고 [illegible] 거행하리라고하는데 홍세뢰(洪世雷)씨의 미거에대하야 각방면에서 칭송이자자하다하며 일반시민은 하루가밧비 개원되기를 고대한다고한다

朝陽保育園 同情演奏會
京都支局後援

【京都】재류동포의 육영기관인 조양보육원(朝陽保育園)은 작변십이월에 만흔동막아래 창립된이래 조선인 비료조합(朝鮮人肥料組合)의 원조와 동조합장김종수(金宗洙)씨의 활동으로무난히 경영하야왓스나 원래재정적 긔초가 박약한 처지이라 여러가지 관계로 자연경비에 곤난을 늣기게되바 때마춤 오케ㅣ축음긔회사 전속가수 이철여명이 취입(吹込)하고 도라가는길을 리용하야 본보독원으로 오는 십팔일밤일곱시에 동산선지은원(東山綠會園) 회정회관화정회의(華頂會議)에서 동정연주회를 개최하게되엿다는바 입장료는 일원으로 본보독자에게는 특히할인한다하며 일반재류인사는 동보육원을 찬조하는 의미에서 만히 매참하기를 바란다한다

牙山郡一圓에 稻熱病大猖獗

【牙山】충남아산지방의 도작은 근변에 보기들은 풍수재와 충재등으로 무한한고초를 바더오던바 인제야 겨우 결실을보게되엿는데 작금에와서는 설상가상으로 도열병(稻熱病)이 발생되여 벼이삭이 대부분 말라죽어 삼할내지사할이상의 감수를 보게되는동 특히 동군랑정면과 염리면이 우심하여 전멸지경이여서 전부수확을하여도 소작료는 물론이요 비료대금도 부족되겟슴으로 일반세농가들은 극로도 불안에싸혀잇다고한다

全校生萬歲聲裡 代表選手出張

【高敞】지난 [illegible]

南浦實踐校生徒 九名에停學處分
先生排斥運動의主謀者라고
校內의不安去益加重

【鎭南浦】금년삼월에 제일회졸업생을 이사회에보내고 재이회졸업긔가 머지안흔 진남포실천상업(實踐商業)학교에서는 졸업반생도간에 불온한공긔가 농후하여 금춘이래 영어 상사요항등의담임교유 고정(高井)씨의배척운동이 일어나 물의가 분분하든중 지난구일 이십오일에는 생도일동이 동교하지안는 불상사를 일으키여 학교당국에서서야(西野)교장이하 직원들이 각가정을 방문하고 무마에노력하야왓스나 아모효과도 업시최근에와서 배척운동은 더욱맹렬하여 졸업반생도 오십칠명이 련서하여 고정교유의 사직을원하는일방 교수시간에 거의등교하지안는등 진남포 교육계의 일대 불상사를 일으키고 잇슴으로 지난달이십구일에 급장림형도(林亨燾)에게 무긔정학 처분을하엿는바 또다시지난 십이일에는 수모자로인정되는 학생아홉명에게 정학처분을 명하여스나 남어지생도들은 더욱불안한 공긔에 싸이여동요의 긔분이보임으로 진남포경찰서에서 방금 내용조사에 착수하엿다는바 사태가매우 주목된다고한다

務安에棍棒强盜
行人을毆打重傷
所得은업시逃走해버려

【三鄕】지난십삼일 오후아홉시반경 무안군일로면(務安郡一老面)주재소에는 피투성이가 된 로인이 강도를 당하엿다고 달려왓다 동소에서는 때가때인만큼 목포서(木浦署)십수명 형사대의 응원을 어더가지고 물샐틈업시 범인을 수사중인데 피해자는 목포부옥정(玉町)십이번지에사는 손귀성(孫基成)(六一)으로서 대성동(大成洞) 김재룡(金在龍)에게 부탁을바더 십삼일오후 여덟시차로 삼향역(三鄕驛)에나려서 무안군석곡면랑장리(石谷面良將里)김하선(金夏先)의 집에가라고 일로면월암리부흥정(一老面月岩里復興亭)을 지낼지음에 돌연히곤봉을든 장한이 나타나서 무수히란타하여 일시혼도케하여노코 소지금품십원을 강탈해갓다는데 형사대가 현장을 수사한결과 배의 륵신점은 길바닥에 떠러저잇고 부러진 곤봉이 남어잇슬뿐으로 아무단서도 잡지못하여 수사대는 협안으로 맹활동을계속하고잇다는바 동서관내에 속출하는 강도사건에 신경이날카로워진 지방주민들은 자못불안에 싸여잇다고한다

第二教育部會서도 近近調查에着手

진남포실천상업학교생도 오십칠명이 단결하여 고정교유배척운동을 맹렬히 한결과 열명의 희생자까지 내엿다함은 별항보도와갓거니와 이번의 교유배척운동을 일으키게된 동긔를 조사한바에의하면 문제의 장본인 고정교유는 구주제대경제과를 졸업하고 작변동교에 부임이래교수에 무성의함으로 생도간에작이고차이엿든 감정이 폭발되엿다고한다 사태가 이러케되매동교경영에 직접관계를가진 진남포부회제이부회의원들도 결코하여 그진상을 조사한후 흑백을 가려라라는바 일반은 일층주목하는바라고한다

全道自轉車大會
空前盛況裡에終幕
一等은大邱孫基敦君

【大田】대전제일보교 동창회주최와 본사대전지국 후원의 전조선자전거경기대회(全朝鮮自轉車競技大會)와 전대전줄다리기대회(全大田索引大會)는 예정과가티 지난십、십일일량일간 본운동장에서 거행하얏다 조선각지에서 모여든 「스피드」선수들의 활략과 여들림의 줄다리기선수들은 사오천관중의 환호리에 경기가시작되여 이일간을원만히 마치엿스며 입상된선수는 다음과갓다

◇自轉車

一流

一着 孫基敦 (大邱)

二着 朴萬吉 (平壤)

三着 張基燮 (鳥致院)

二流

一着 吉用奮 (大田)

二着 兪泰根 (仁川)

三着 安明植 (大田)

三流

一着 韓仁成 (平壤)

二着 李圭相 (仁川)

三着 崔鎭和 (京城)

女流

一着 韓春花 (定州)

二着 孫奐淑 (大田)

三輪車(幼年)

一着 吳慶達

二着 崔炳俊

三着 姜振燮

◇索戰

一等 柳川町

二等 大興町

坡州郡內에 一面一校完成

【坡山】파주군(坡州郡)내에는지금까지 일면일교제가 완성되지못하야 교육상 막대한불편과취학아동의 통학상 영향이 만혀 일반교제가 속히실현되기를 갈망하든중 십개면중 구개면은작년도까지 설립되고 월롱면(月籠面)만 남엇던바 군(郡)면(面)당국과 일반유지의 로력으로월롱공보교(月籠公普校)가 실현되여 지난십일 동면영전리(英田里)가 교실에서 개교식을 성대히 개최한바 수용아동은 일학년사십명과이학년삼십명이라한다

棉花本山地務安에 收穫皆無狀態
農民의悲鳴聲高調

【三鄕】전남무안(全南務安)이라하면 면화(棉花)산지로 유명한만큼 주민들은 오즉면작으로 생계를 삼음뿐이고 또 당국에서도 면작장려에 박차를 가하야 전선적으로 제일위를 차지하고 잇는바인데 금변은 미증유의 호우와 폭풍우로인하여 면작은 거의 전멸상태에 빠저잇스므로수확전성긔인 이때임에도 불구하고 례년의이때에비하여 일할의 수확조차업서서 농가의 비탄성은 날로 놉혀갈뿐이니 금변에 쓰경험을 맛본일반농민은 면화를 경작하는것이 생도가 안되다하야 앞으로 경작자가 속속 감소될 현상이며만일에 당국에서도 금변과 가튼흉작에 절처한 방도로써 보조(補助)와 편리를 도모해주지안는다면 다음해 장려상 막대한지장이 생길것이라한다。

校長에게警告文
暴行訓導警戒코저
第一公普後援會에서

【大田】귀부대전제일공립보통학교훈도 천수(天水)(假名)모와 리(李)모사이에 지난구월이십칠일 운동회석상에서 일대란투극을 연출하얏슴에대하야 한동정측으로부터 여론이비등하야 나려오든바 보교후원회(普校後援會)에서도 이문제는 공교자로서 용서할수업다하야 지난십일일오후네시부터 리사회(理事會)를개최하고 신중토의한결과 그의장래를경계하기위하야 동교교장에게 경고문을 발송하얏다

地方人事

▲近野道弘氏(群山稅務支所參事出張所長) 新任人事次本社參禮支局來訪

東京

△時日 十月二十五日(日)午後六時半

△場所 早稻田大隈大講堂

水害救濟 音樂·舞踊의밤

◇主催 在東京朝鮮留學生同窓會聯合會

◇後援 朝鮮日報社東京支局

愛慾의彼岸 【128】
李光洙 作 / 金康穆 畵

얼마 엇다가 문임은 떼세 꼬개를 들면서、

「혜련、혜련」

하고 불렀다。

「언니!」

하고 혜련은 문임의 손을 잡앗다。

「혜련이가 그래도 나를 미워하지안허? 나는 혜련을 미워하고 모함햇건만 그래 혜련은 나를 이러케 불상히 여겨주어? 혜련은 천사야。나는 악인이구。그럿、정말 그래요」

하고 길게 한숨을 쉬고나서、

「혜련이 나는 죽을 길밧게 업서。나는 양심의 눈을 싸매지안코는 운주씨와 혼인할수두 업구、아버지와 혼인할수두 업거든。내 몸과 마음을 두 사람에게 다주엇거든」

하고 입설이 으스러저라 하고 꽉 문다。그 때의 문임의 얼굴은 어룸사가르가 날뻔뜻이 무서웟다。

「무어요? 아버지 허구두?」

하고 혜련은 넘어도 놀라워서 몸을 뒤로 움칫햇다。

문임은 아모것도 꺼릴것 업다는듯이、커다라케 고개를 끄덕끄덕햇다。

「언니、그게 정말요?」

문임은 또 고개를 끄덕거렷다。

엽방에서 나던 김장로의 코고는 소리가 끄친다。아마 혜련과 문임과의 이야기소리에 잠이 방해를 밧는 모양이엇다。

「혜련이」

하고 문임은 엽방에서야 듯거나 말거나 상관 업다는듯한 여무진 소리로、

「난 내젠 두길 박게 업서。아모러케나 되는대로 되어라하고 지옥 밋바닥을 향하고 떨러나려가거나、그러치아니하면 아직지옥 중턱에 걸렷슬 적에 죽어 버리거나。그밧게 도리가업지안어? 인제 이 더러운 혼과 마음을 가지고 운주씨를 다시어떠케보아? 못보지! 못보구말구。누구든지 이런 몸인줄 알구 다려갈 사람이 잇거든 다려가라고 길시바닥에 내던져주박게 업지。점잔사람들며 나를 지범은죄지。내게 침을 뱉고 코웃음을 던지라지。혜련이 나는 그러케될 사람인걸 가례 흥시 죽어버리지아니하면」

하고 저를 비웃은드시 떼웃엇다。혜련의 눈에 저준 문임의 얼굴에 조롱의한 웃음이 떠진것은 무서운 광경이엇다 마치 파멸에 가까운 혼의 그림과 가탓다。

「언니、왜 마음을 그러케 먹수。어쩌다가 길을 잘못 들엇더라두 인제부터라두 바루 돌어설 생각을 하지안쿠 왜 그러케 가루 달아나려드우? 그러케 자포자기하는것은 언니 잘못된 생각야」

혜련은 어떠케 위로햇스나 문임은 도로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비웃는 표정을 하며、

「내가 인제 어떠케 바른 길루 들어? 인제 내가 갈길이 어디 잇서?」

하고 입을 삐쭉햇다。

「왜 업서。바른 길이 왜 업서!」

「어듸? 무슨 길이?」

「분명허지안우? 언니 양심에 생각해보면 분명허지안우?」

「어떠케?」

「나 가트면 이러컬레야。내일이라두 곳 서울루 올라가서 운주씨를 차자보구 모두 자백을 하거든。그리구 그이의 용서를 청헌단말야。그래서 운주씨가 용서해준다면 조흐—그이와 혼인해서 살구、만일 용서못헌다면、다시는 안 사랑한다면 그때에는 언니 자유로 허구려。지금 언니가 집을 진데가 은운주씨여든、안 그럿수? 언니가 운주씨를 언니게루 끌어놋코는 되려 배반을 햇거든。그러니깐 언니 마음에 평화를 줄 사람은 운주씨란 말요。운주씨의용서만이 언니의 마음을 구원한단 말요、그러치안수? 날 내생각이 올흔것 가튼데」

하는 혜련의 말에는 정성과애정이 넘처흘럿다。

「난 못해、난 못해!」

하고 문임은 고개를 아니라 몸까지 흔들엇다。

「그것을 어떠케 해? 무슨 면목으루 운주씨를 다시 보아?」

이 때에 김장로는、벽을 두어번 두드리면서、

「웨들 자지안흔 안야、무슨 이야기들이냐。내일은 일즉떠나야 다면서」

하고 소리를 질럿다。

金釜有望한

軍手의製造

專屬製造家募集

十一年度高速度能率機

各面一名限하야新規開

特別割引으로써

豐國軍手京城營業所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十九番地

리—도式

돈버는機械

五合의쌀과、옥수수가 八升의 菓子가된다

(定價表進呈) 釜山府寶水町一丁目 城野製作所

朴家粉化粧品

박가분화장품

本舖 京城蓮池町二六 電話光化門三三六

京城鍾路四丁目五 綢緞綿布都散賣商

株式會社 朴承稷商店 電話光五七一七番

黑髮로 젊어지는 養毛 호르몬配合의

チドリ椿香油

チドリ椿ポマード

速히낫는 淋疾藥

特製 리베ー루

물음、압흠 곳곳침

藥價 一圓、三圓、五圓十五圓

大阪市南久太郎町堺筋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三六三〇番

全國到處ノ藥店ニアリ

最高級國特マグネツト付

クスド輕油發動機

開業紀念廉賣開始

特約店大募集

在庫豐富

專門輸賣品 クスド發動機 豊年式精米機 各種マグネット 及付屬品卸賣 其他各種機械

京城府青葉町一ノ九八

楠戸商會京城支店

支店長 羅明均

支配人 宋錫[illegible]

電話龍山五[illegible]番

半島國語教育界의福音!!

總督府制定·教育會認定

標準朗讀레코ー드

各學年後期用第二回 發賣!

朝鮮總督府 普通學校 國語讀本

Columbia

콜럼비아레코ー드

謹告

來十八日은例祭日임으로謹而休業합니다

南大門通 丁子屋

鍾路通 和信

本町通 三越

同 三中井

同 平田

아이생활 11月號

가을特輯

본지집필자들의 가을다령

이야기 새벽하늘 8

쌘타크로쓰 선물

에기그림책

童謠·童話 小說·其他 생활기사

地方支局大募集

아이생활社

朝鮮文으로編輯된唯一의

速修英語講義錄

朝鮮文으로解釋되까닭에發音이正確 (內容見本卽送要二錢切手)

京城府樂園町五五 英語通信研究會

婦人科 産科 라듸움科

京城婦人病院

電本局(2)〇四八二·三八九三番 京城北米倉町九四

外科 肛門病科

醫學博士 朴昌薰

電光一四五二

每日施行

日本經濟의 跛行

● 一層顯著化를 豫想

擴大再生産의 具體化에 伴하야 日本의 인푸레슌은 인푸레第二階梯에의 飛躍을 보이는 中으로 昨今까지의 인푸레過程에 있어서 漸次表面化하던 日本經濟의 跛行現象은 一般的으로 보면 一段顯著化할것이 豫想되는바 說明의 便宜上 日本經濟의 跛行現象을

1、産業의內部의 跛行現象
2、金融과 産業의 跛行現象
3、消費內部의 跛行現象으로 大別하야 檢討하면 아래와같다。

×

産業內部의 跛行現象을 端的으로 表現하기 爲하야 軍需産業과 輸出産業 或은 軍需産業과 平和産業과의 對立을 들수있다。勿論그區別이 明瞭치는 안으나 이런 跛行現象은 이미 明瞭한 事實로서 存在하여있다。

먼저 生産指數로보면 昭和五年을 一〇〇으로한 指數는 鑛業指數가 累年增加되어 十年에는 一五〇으로 今年五月에는 一六〇에 達하얏다。그리고 最近까지의 經過에 依하면 生産財指數와 消費財指數와의 變動은 昭和八年까지의 平行的增加 昭和九年以降의 生産財偏重과 消費財指數의 遞減의 兩者間의 鈍狀差의 擴大를 그特徵으로하고 平和産業間의 跛行現象은 이에 그一指標를 見示하고 있는것 같다。

生産指數(昭和五年＝一〇〇)

	鑛工業指數	生産財指數	消費財指數
昭和五年	一〇〇、〇	一〇〇、〇	一〇〇、〇
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年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그리고 鑛工業生産指數의 增加程度는 消費財指數의 그것보다 多하다 軍需部分을 占하얏슴에 不拘코 如斯히 消費財方面이 低調한것은 日本의 軍需産業이 資源의 貧困의 結果이다。軍需生産 促進의 反面에 原料品乃至原料用 製品輸入이 傾向的으로 增大되고 共히 原料國際의 逆行을 要請하는 數字的表現에 不外하다。

×

貿易數量指數의 近年의 傾向은 一面에있서는 輸出伸力의 鈍化 時에 他面에있서 日本經濟의 原料用製品輸入 增加傾向의 顯著를 明示하는 同時에 原料乃至는 原料用製品輸入 增加傾向의 顯著를 看取케하고있다。

貿易數量指數(昭和五年＝一〇〇)

	輸出指數	輸入指數
昭和五年	一〇〇、〇	一〇〇、〇
六年	[illegible]	[illegible]
七年	[illegible]	[illegible]
八年	[illegible]	[illegible]
九年	[illegible]	[illegible]
十年上半期	[illegible]	[illegible]

輸出指數는 아즉그 數量增加를 보이고있스나 金額指數、單價指數에 있서는 이에 反하야 停滯氣味에 있다。이에 反하야 輸入指數의 今年에 入한 後의 著增은 此際注目되는 일로서 如斯히 傾向은 去年來强化될 情勢에 있다고 보이는다。以上 生産과 貿易의 變動으로 軍需産業과 平和産業或은 軍需産業과 輸出産業間의 跛行現象이 있음...

輸出産業間의 跛行現象의 存在를 認知할수있는바 이것을 事業別利益率의 推移에 依하야 보면 그事情이 더욱判然하다。

事業別利益率推移

	纖維工業	重工業	電力及瓦斯事業	鑛業(其他)
昭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年上半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輸出産業을 代表하는 纖維工業을 보면 그利益率은 八年의 三三、六%를 頂上으로하고 明確히 逆轉을 하엿다。

이에 對하야 軍需産業의 典型的의 것으로서의 重工業의 利益率은 十年에至하기까지 增加를 示하고 十一年上半期에 겨우反動을 보하야 二〇、二%의 利益率을 示하엿다 生産財生産과 消費財生産과의 跛行 從하야 生産과 輸出間의 鈍狀差의 擴大가 展望되는 以上 纖維工業의 相對的減益은 大勢하고라도 軍需産業과 輸出産業間의 相對的地位는 去益擴大될것으로 보아야할것이다。

平和産業에 잇서서도 輸出産業과 大同小異라 할수잇다 그러나 纖維工業以外의 平和産業은 日本에서 獨占企業化한것이만코 그러치안흔것도아즉 利益率의 相對的減少를 示한것은 存在치안어서 大體에잇서서 動力及燃料事業등은 現狀을 維持할것으로 보아도조흘것이다

—(계속)—

工業投資에 偏重

農業施設은 輕視?

論議된것은實施에移할것으로

産調會의歸着點重視

朝鮮으로서는 實로未曾有의大規模의 朝鮮産業經濟政策의 諮定會合이될朝鮮産業經濟調査會는 來週火曜二十日부터、開催키로되여잇서 會議를 압두고 各方面의 注目은 더욱 커가고잇다 同調査會의委員은 總督府의 各局長外 少數의 所屬官員을 除하고는 大部分日本內地、滿洲方面의 實業家 金融界巨頭、學者等六十九名으로 會議는總督府에서 提示하는案을 中心으로하기는 할것이냐만이는 人物들의 數와그質로보아 論議의 焦點이 어데로 集中될것인가하는것은 只今부터 多少推測을可能케하는바이잇지안라 即 朝鮮의 産業經濟事情은 滿洲事變後朝鮮自體의 發展에 다시 特殊情勢를加味하야 農業本位에서 工業方面에로 資源開發、新工業의發興에 方向轉換을 보게되것은事實에 總督의 重要新政策으로되여잇다 그實際는 日本內地資本의誘致工作이 뚜렷한 事實이잇고今後에 잇서서 『躍進朝鮮工業』의面目은 一層 旺盛케 될것으로觀測되는 唱되며 産業經濟開發上工業重要性을 가지게된모양인데 이때에 大規模의 調査會를 開催케됨에 同會에서 論議되것은 來明年의徵算부터라도 示現될 可能性을 가지고잇서會議의 歸着될바는 極히 重大하다 그런데會同될 委員으로보면 그人物이 日本內地의 企業家資本家等이 多大數인만큼 總督府의 議案以上으로 廣範圍의 朝鮮開發이라는 論題는 工業本位의 投資關係가 中心이되여 朝鮮經濟의 本來的 苦惱으로 되여잇는 農村方面의 救濟更生을 爲한 一般的施設과 그 改善에 關하여서는 意外에도 輕視되지나 안을까하는것은 또한크게注目을 끄으게되는바이다

同調査會關係는 殖産局과 農林局이 重心이될터인데 會議를 압두고 兩局長은 다음과가티말하다

新政策도可하나 從來政策尊重

穗積殖産局長談

『會議內容은 公開치는 못하게될것이나 어느程度까지는 그經過를 發表하여도 조흘듯이 생각하고잇다 果然 어느程度로 會의 收穫을 어들는지는 알수업스나 새로운 意見은 될수잇는대로 널리 듯기로한것은 會議의 本意이다 勿論 新資源의 開發、工業의 勃興이란것이 重要한것으로되여잇스나 그 이 重要한것이 議案으로 될것이 ...

農林方面으로는 工業化를重視

矢島農林局長談

農業方面은 從來米穀中心이든것을 田作方面에도 새로운考慮를 하게될모양인데 例를들면 製粉工業을 爲한 小麥獎勵 高地帶의工業用作物等도 論議될것이고 또 林業方面으로는 從來 木材中心이든것을 『팔푸』工業에도留意케되어 工業化의問題가 重要

産調會압두고 營農者大會

十九日에開催

朝鮮農會斡旋에依한 全朝鮮營農者大會는 十九日午前十時부터 東拓朝鮮支部會議室에서 開催하고 當日은 産業調査會에 委員으로 出席할 三井、松井兩委員에 對한 營農者側의 態度要望을여러가지로 綜合하야 兩氏를通하야 調査會에 어떠한 意志表示를하기로되엇다

統制法의朝鮮施行은 爲先洋灰에限定

今後는技術問題折衝

重要産業統制法外地施行問題는 宇垣前總督時代에 時期尙早論으로 日本內地側에 對時形態에잇섯스나 最近와 內外地를 通한産業狀態는 오히려 外地進出企業에 對하야 危惧를가지게되어此際統制를 限定하야 同法의朝鮮施行에 實施를 表함이 適當하다고 認하고 過般來 穗積殖産局長은 石田鑛山課長을 帶同하고 渡東中 林財務局長과함께 商工省과 折衝을 逐하야 세멘트業에 關한 限 外地도 同法을 施行할 根本意見의一致를보게되어 今後 繼續하야 세멘트統制에 關한折衝으로

一、組合에 對한 監督權의問題
一、生産制限等의 決定問題

가 남어잇슴으로 法律的 技術上加하야總督府와 拓務商工兩省間에 折衝을 거듭하기로 되어잇다 이리하야 세멘트業에 關한 統制法은 制令으로써 朝鮮에도 施行할터인데 統制法에잇서서의 統制權限選定은 依然總督의 權限에 屬함으로 總督府에서는 세멘트以外의 統制法施行은 當分 이를 行치안흘것을 言明하고잇다

京城物價昂騰

朝銀調査의 九月中京城物價指數는 一九四포인트一五를示하야 前月中에比하면 一포인트六八의昂騰이오 前年同期에比하야 一二포인트〇三의 昂騰을 示하얏다 調査品目三十種中 騰貴한것은 十二、低落한것은 七、保合品목五이다

朝郵의決算案

朝鮮郵船의 上期利益金處分案은十四日 重役會에서 如左히決定하얏다

今期純益金　二二〇、五八〇
前期繰越金　七五、九八一
計　一九六、五六二
그處分
法定積立金　六、五〇〇

工業補助額 二百八十餘萬圓

二十五個年間實績

工業工場의 助成育成을 爲한國庫補助支出額은 今年度까지 二十五個年間 合計二百八十七萬八千七百二十八圓에 達하는바 그主要한 補助會社는 如左하다

朝紡 一、六八五、一八一圓▲京紡 二五四、九〇三 ▲大昌織物 八八、五七五 ▲朝鮮絹織 五〇、〇三七 ▲東亞燐寸 六、三三〇 ▲朝鮮皮革 七五、一五〇 ▲東洋染織 四、〇〇〇 ▲朝鮮窯業社 三六、〇〇〇 ▲井上直壽堂 一四、〇〇〇 ▲平壤製陶 三、〇〇〇 ▲朝鮮畜코三、〇〇〇 ▲江華窯業 一、五〇〇 ▲朝鮮乘天 七、〇〇〇 ▲東洋機針 一、〇〇〇 ▲竹中化學 三、一〇〇 ▲共同作業場 二八三、九五〇

農會의秋肥配合 二十四萬四千百餘叺

朝鮮農會의 今年度 配合肥料工場 十個所의 秋肥配合申込은 風水害 旱害로二、三割減少하야 二十四萬四千百六十四叺인데 釜山과群山이 配給中인것을除하고 他는 全部 配給하얏다 各道別 配給數量은 如左하다 (單位叺)

京畿 六四、九一〇 忠北 一一、三四八 忠南 四、〇三〇 全北 二三、〇三八 全南 五一、三九〇 慶北 三四、九二四 慶南 一四、五〇〇 平南 一四、一二二

簡保 客月業績

朝鮮簡易生命保險 九月中의 新規契約數는 一萬五千二百六十九件으로 其月額保險料 一萬六千六百七十三圓六十錢 그保險金額 三百二十萬五百四圓七十錢이다

地元銀行의 業績好轉

資金運用順調

地元銀行의 下期業績은 期央까지의 實績으로보면 今春 行한 預金利下가 浸透하야 資金코스트가 貸付金利의 低下率에 倂行하야 低下한 結果 資金의 運用이 자못 順調로되것과 所謂 躍進朝鮮景氣로 融資好對象物件의 增加와 이에 伴한 放資範圍의 擴充、整理關係 固定資産의 有利資金化에 依한 利潤의...

米、印棉市況

印棉은 日本側의 買物이잇서 市況은 比較的 閑散하고 引際는 安定되어잇섯다

米棉은 처음 리버풀高로高價이엇스나 그後多量의 繫買가잇고納會切迫으로 十月限에 對한處分으로 反落하얏다 그래도大體 據定이다

殖銀實與金

役員賞與金　一二、〇〇〇
株主配當(年五分)　九六、八七五
次期繰越金　八一、一八七

그런데 當期純益金은 前期에比하야 二萬九千百九十五圓、前年同期에比하야 五萬三千百五十八圓의 增加이다

引은 前日에比하야 現物四포인트低、短期十月限 二十二포인트低、그他의 限月三포인트乃至六포인트低이다

農林局課長人選內定

農林局의 新設米穀課長에는 現農産課長鹽田正洪氏가 就任하고農務課長에는 群馬縣經濟部長松澤龍雄氏가 朝鮮就任하며 農村振興課長에는 影山農政課長이 轉出하기로되엇다 그리고 官制改正中 現農政課事務中 農務課에 引繼되는것은 蠶業、畜産及農會關係고 그他는 農村振興課로 될 據定이다

米日爲替 【經濟十五日發同盟】

今日의 米日爲替는 賣二十八弗六十三仙、買二十八弗六十一仙이다

▲東京爲替(十六日)
對米 賣 二十八弗十六分九 買 二十八弗十六分十一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一 買 一志二片十六分五
▲大阪爲替(十六日)
對米 賣 二十八弗十六分九 買 二十八弗八分五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十六分一

經濟界消息

○穀聯幹事會 二十日開催＝朝鮮白米袋入不賣問題는 大阪米穀會의 脫退로 依然 好轉하얏는바 事態를 靜觀中이든 朝鮮穀物協會聯合會에서는 이를 當然한 推移라하야 今月下旬에 幹事會를 開하고 右問題에 對한 今後의 態度에 對하야 協議하기로되엇는데 右幹事會에는 此外 穀物大會에서 幹事附託으로된

一、檢査期間經過穀物의 再檢査는 七月一日부터 實施하고 大谷의 同再檢査는 撤廢하기를 要望할件

을 附議할터이다

經濟寸鐵

○ 産業調査會委員을보면 日本內地大事業家가 殆半을占領
○ 그論點이 大資本의 朝鮮工業誘致에 偏重되지안흘가
○ 工業勃興보다도 中小工業問題가 더욱 頭痛거리
○ 그보다도 朝鮮은 元來가 農業이 太宗、農村疲弊가 朝鮮經濟의 癌腫
○ 緩急輕重을 가리어 論議할 ...

跛行的임을不免 「凸凹市勢」時代

이때까지의 市場趨勢의行動으로 ...

株式 續落後에 低迷

商況 【十六日】

取引停止 十月十日▲朴米

商高陽郡纛島面纛島里七七一番地金永俊 ▲京城府京町一六番地合資會社新興고무工業所代表者金宗用

前場續落 休日동안 東阪市場이 一齊히 暴落을 演하엿스므로 今前場은 人氣는 俄然興奮되어 寄付하엿는데 朝取入十七圓五十錢 朝新三十五圓九十錢 鐘新百七十四圓九十錢 大新七十圓四十錢 東新百三十四圓十錢 日産八十一圓三十錢에 各各寄付하야 鐘新百七十三圓七十錢東新百三十三圓五十錢의 新低價를 보인後 低迷裡에 東新百三十四圓三十錢 日産八十一圓五十錢鐘新百七十四圓丁에 大引하엿다

後場低迷 後場은 東新百三十四圓十錢 日産八十一圓七十錢으로 低迷裡에 保合이엇다

當分低迷保合 但追擊賣警戒

마츰 朝取市場이 休會되는날 東阪兩地市場에서 暴落을 演出하엿스므로 今朝의 當地市場의 人氣는 興奮裡에 寄付하야 下押하엿다 東新이 百三十三圓五十錢의 新低價를 보엿고 鐘新이 百七十三圓七十錢의 低價에로 低落되엇는데 亦是人氣는 押目을 買하려는 傾向이 濃厚하야 容易히 그以上의 低價를 不許하는 光景이데 如何든 별다른 材料가 업는限 當分 低迷에 此邊에서 保合될것이아닌가 觀測되다 問題의英中借款成立說도 外務省에 達한情報에 依하면 아직成立된것이아니며 英大藏省輸出信用保險部와의 新借款이란것도 아직 確定된것이 아니고 交涉途中에 잇는것으로서 萬若 그러하다 하여도 論難하고 그라고 傳한다 그런데 警戒되는것은 不安이 利用되여 그 ...

實物前場取引

取引高 三〇〇枚

▲全朝鮮錢業 ... ▲朝鮮製鐵 ... ▲滿洲 ... ▲日本産業 ... ▲大阪 ... ▲東京市 ...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

內債는 買氣停滯情勢에 銀氣味를 生하야 賣分買物이 散見되어 三分半、四分價는 各各 五錢下押하고 佛貨도 十五錢低落 告하고 米貨債도 賣分買로 六分半一圓低 五分半九十錢低가 되엇다

△甲五分利 一〇〇 △一回四分利 一〇〇、五 △一回四分利 一〇〇 九五 △佛貨 一九六、一五

期米 頑强이나 伸惱

前場伸惱 昨後場 阪地二...

米...敷設反發을 示할것

各地市場은 一復後다시伸惱、可謂人氣敷滿市勢로는▲그러면 今朝의 高價를 小天井으로하고 떠러지나하면 此亦는 다지 疑慮 불安할것은 못되리라 다만 英國의 對中國心을 表示한 제스추어라고보아서 後日中交涉에 影響이 不無하리라것만은 看過치못할것이다 이러케보다면 今後이以下의 新低價를 보이는 일이잇더라도 追擊賣는 警戒할바이라고한다 果如何?

當限戰의對峙

九ウ賣金太買

... 當限戰의 取組는 表面上一萬六百石에 不過하나 그裏面의 數量은 相當 ... 丸ウ 賣金太買의 對峙 ...

賣過의反動?

百丁戾은無難

後場保勢

朝取期米取組內容

堂島主要賣買

各地正米

東城正米同事 二日繼續休日을 압두엇스나 定期의 ...

仁川不變

釜山休會

大邱小强

群山手堅

木浦保合

今日財界 (十六日)

期米 東 趙後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米 仁川 康益商店 株式 金益證券

株式 期米 玉 柳來恒取引店 仁川本町

朝取取引員 アジア證券 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リ二ノ一日生ビル

金.銀.白金 德 京城德力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234 京城府明治町